

너희는 그저 '예'할 것은 '예' 하고  
'아니오'할 것은 '아니오'라고만  
하여라 (마 5:37)

# 기독일보



이문규 법률그룹  
www.leekent.com  
대표전화 : 213-380-2828

## 여호와와 선하심을 알찌어다



세리토스장로교회(김한요 목사) 청년부인 리얼 미니스트리(Real Ministry)의 겨울 수련회가 말리부 해변에 위치한 캠프장에서 개최됐다.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느냐에 따라 젊은이들의 삶과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개강을 앞두고 각교회별로 청년부 수련회가 열리는 가운데, 지난 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세리토스장로교회 청년부인 리얼 미니스트리(Real Ministry)의 겨울 수련회가 말리부 해변에 위치한 캠프장에서 개최됐다. 강사는 이석준 목사(전 북가주 뉴라이프선교회)가 초청됐다.

이번 수련회의 주제는 시편 34

장 8절 말씀인, ‘너희는 여호와와 선하심을 맛보아 알찌어다(Taste & See, the Lord is Good)’ 이었다. 강주영 전도사는 수련회 주제

### 세리토스장로교회 청년부 수련회 열려

를 정한 이유는 “여러가지로 불안하고 흔들리는 이민 사회의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참으로 좋으신 분이심을 맛보아 아

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화려한 프로그램보다 능력있는 말씀과 뜨거운 찬양과 기도, 교제가 은혜로웠던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첫날 저녁집회는 마태복음 3장 16~17절을 중심으로 ‘세례 받으셨나요?’라는 제목의 말씀이 전해졌으며, 둘째날 오전에는 히브리서 11장 24~27절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기’, 둘째날 저녁에는 누가복음 22장 54~62절 ‘우리 하나님은 크십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이 전해졌다.

(지재일 기자)

## 충현선교교회 “파송 선교사 초빙”

충현선교교회(담임 민종기 목사)는 2011년도에 파송할 선교사를 초빙한다. 선교지역은 멕시코

티화나 인근지역이며, 신학과정을 마치고 올해 안에 파송될 수 있으며 세계선교의 소명이 투철한 자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이력서 및 가족사진, 목회자 2인 추천서, 개인간증 및 선교비전, 설교 또는 간증 테이프 1개 등을 2011

년 2월 24일(목)까지 충현선교교회로 제출하면 된다. 충현선교교회는 지난 1989년부터 매년마다 한명씩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문의: 818) 549-9191/ 이메일: newthingwm@yahoo.com

(박상미 기자)

지난 29일 LA총영사관에서 타인종, 타종교 커뮤니티를 섬기기 위한 사랑의 쌀 나눔 잔치가 펼쳐졌다.

이번 나눔 잔치를 위해 미주성서화운동본부 관계자들은 1개월 전부터 타인종, 타종교 불우이웃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초청했다. 이날 베트남, 멕시코, 필리핀 등 다민족들과 생계가 어려운 흑인, 백인들도 찾아와 쌀을 전달 받았다.

교회에서 사랑의 쌀 나눔 잔치에 대해 알게 됐다는 과테말라 출신의 세사르 벨리즈 씨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한국인 뿐 아니라 다민족 불우이웃을 위해 쌀을 나누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지난 30일에는 빅토빌에

수마음교회(담임 김성일 목사)에서도 주일예배 후 LA총영사관에서 직접 픽업한 쌀 100포를 다민족 주민들에게 나누었다. 이날은 빅토빌리 뿐 아니라 애플밸리, 헤스페리아, 필랜에서 라티노, 흑인, 러시아 등 지역 주민들에게 쌀을 전달했다. 김성일 목

이성우 목사(미주성서화운동본부 상임본부장)는 “지난해보다 사랑의 쌀 모금액이 줄어 경제 사정이 어려워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인들뿐 아니라 다민족들을 섬기기 위해 이번 행사가 진행됐다”며 “예수님의 사랑의 전하기 위한 선교적인 차원에서

## 다민족 커뮤니티를 위한 사랑의 쌀 나눔

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랑의 쌀은 2010년 연말 엘에이, 오렌지 카운티, 샌디에고, 마이애미 등에서 총 7,500포, 1월 29일 900포, 2월 초 애리조나주 투산에서 600포를 합하면 총 9,000포가 전달됐다. 사랑의 쌀 후원금은 지난 1월 31일 까지 \$86,474이 모금됐다.

고 전했다. (지재일 기자)



## 오는 26일 다민족 연합 크리스천 리더 조찬기도회

코리안라티노커뮤니티협회(대표 김태현 박사)가 주최하는 제3회 다민족 크리스천 리더 조찬

기도회가 오는 26일(토) 오전 8시 30분 가든스위트호텔에서 열린다. 노예해방에 공헌한 링컨 대통령과 흑인계 노예폐지론자 프레데릭 더글라스를 기념해 1926년 이후 지켜져 온 2월 ‘흑인 역사 의 달’에 열리는 이번 조찬기도회

에는 한인, 흑인, 라티노 커뮤니티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신앙을 바탕으로 한 화합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도회에 초청된 강사는 유나이티드 커뮤니티 교회 담임 제임스 크롬 박사가 초청됐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예약필수이다. 문의 (323)600-5672 (지재일 기자)



##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삼성이  
하먼  
다들입니다



###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www.easy2424.com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으로...

### 미주한인사회 대표

## 종합법률그룹



대표변호사 이문규  
LEE & KENT 법률그룹 대표변호사  
미국 투자법 및 투자이민 전문변호사  
Univ. of Minnesota 법대 LL.M(대학원 졸업)(1993년)  
Univ. of Missouri 경영학 및 국제학 석사(1989년)  
캘리포니아 재판변호사 정회원  
미주한인법률 변호사협회 정회원  
미주리주 공인회계사(CPA) 협회회원  
Business Advisory Council(캘리포니아) 임원  
미주 상공인 총 연합회 고문 변호사  
국제 Law Firm Couders, Brothers, 권우  
국제거래/회사법/이민법/세법/금융/권력 해결

### [특별상담]

- 비자 거절
- 영주권 거절
- 추방재판

### 이민법 [Immigration]

- 각종 비이민비자 / 이민비자
- 취업비자·취업이민(EB1, EB2, EB3)
- 종교비자·종교이민·가족이민
- 투자비자(E2), 투자이민(EB5)
- 추방재판, 불법체류 구제
- 비자거절·항소

### 상법 / 소송 [Business / Litigation]

- 민사(소송, 중재, 항소) 부동산법
- 형사, 국제 소송, 기술 이전 / 상표법
- 상법(계약체결·위반)

### 파산법 [Bankruptcy]

- 개인 파산, 기업 회생
- Chapter 7, 11, 13 소송 및 차압
- 신용 문제 상담



이문규 법률그룹

LAW FIRM

대표전화 213-380-2828

LA Office  
915 Wilshire Blvd, #2050  
Los Angeles, CA 90017  
213-380-2828

IRVINE Office  
8 Corporate Park #300  
Irvine, CA 92606  
949-442-8370

SEOUL Office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7-25 리길타워 1904호  
822-510-5200



▶ 제30대 회장 손태정 목사 취임...이사회 대신 운영자문토 조직

# 조직 재정비한 OC목사회, 목회자 섬기는 공동체로 '새 출발'

30여년의 역사를 가진 오렌지 카운티목사회 회장 이취임식 및 자문위원 위촉식이 지난 1월 29일(토) 예수비전교회(담임 박대근 목사)에서 개최됐다.

제30대 회장으로 손태정 목사(주성선교회, 한성명교회 협동목사)가 취임했으며, 이사회 대신 운영자문위원회를 조직하고 위원장에 문현봉 목사(복음루터교회)를 위촉했다.

OC 목사회 이사회는 목사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된 책임으로 스스로 물러남으로써 자연스럽게 해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손태정 목사는 "오늘날의 패역함이 누구의 문제이고 책임인가라고 반문하며 우리 목회자들 때문이라는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다"며 "이런 마음으로 목회자들부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모이기 원한다"고 말했다.



(좌) 오렌지카운티목사회 회장 손태정 목사, (우) 자문위원장 문현봉 목사. ©지재일 기자

손 목사는 "모여 기도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도전과 힘을 받고, 목회자들을 섬기는 교육사역을 진행할 것"이라고 취임사를 전했다. 이에 따라 오렌지카운티목사회는 목회자 대화법, 나눔과기쁨 사역, 체육 레크레이션, 가정사역, 장례

문화, 큐티, 선교, 교회 개혁과 성장, 밴드 목회, 내적치유, 목회 리더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목사회 협력 강사들을 위촉해 2월부터 정기적으로 목회자 섬기기 교육을 실시한다.

손태정 목사는 "어려운 개혁교

회 시절, 훈련을 위해 세미나를 참석하려해도 참가비용이 들어 부담이 되었던 적이 있었다"며 "비슷한 어려움에 있을 목회자들을 위해 무료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며 섬기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임회장 박대근 목사는 "1년간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새롭게 시작하게 되어 감사하다"며 "목회자들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회복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이 되도록 협력하고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취임식에서 설교(본문 왕상 19:1-8)한 박동건 목사(CRC한인교회 담당디렉터)는 "엘리아가 큰 능력과 이적을 드러냈지만 본문의 모습은 차라리 죽고 싶다고 할 정도로 지치고 탈진한 모습처럼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사역에 대한 강박이나 부담

때문에 지쳐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동건 목사는 "그러나 기도하는 곳에는 분명 성령의 위로와 역사가 나타난다"며 "같은 문제와 소명이 있는 목회자들이 모일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설교했다.

박 목사는 "각자의 사역 때문에 바빴던 목회자들도 모여서 협력해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연합과 협력이 힘들게만 보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 저절로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고 목사회에 대한 기대를 표했다.

30대 오렌지카운티목사회 임원은 회장 손태정 목사 이하, 부회장 이천선 목사(남가주형제교회), 총무 김홍권 목사(페트라교회), 협동총무 이근환 목사(다송교회), 서기 임금빈 목사(주성교회), 회계 장철호 목사(한생명교회), 감

사 선광우 목사(뉴조이스교회) 등이다. 새로이 조직된 운영자문위원 위원장으로 문현봉 목사(복음루터교회), 박대근 목사(예수비전교회) 등이 위촉됐으며, 부위원장으로 강남중 목사, 박동근 목사, 박두현 목사, 박상목 목사, 이종은 목사 등이 위촉됐다.

교육을 위한 협력강사로는 강남중 목사(목회자 대화법), 강신권 목사(나눔과기쁨), 강윤택 목사(체육, 레크레이션), 금병달 목사(금정선 사모(가정사역), 김영 목사(장례문화), 김종경 목사 김태환 목사 김은애 사모(큐티), 김정환 선교사(선교), 류모세 목사(열린다 성경세미나), 박동건 목사(교회개혁, 성장), 장학일 목사(밴드 목회), 피터강 목사(내적치유), 크리스티나 강 목사(목회 리더십) 등이 위촉됐다.

〈박상미 기자〉

**연방 및 주정부 지원으로 LA ORT 대학에서**

저소득층 시민권자, 영주권자, 유자격자 한인 가정에 ESL과제, 학비 전액 보조 및 다양한 직업교육 보조금 지급, 고수입 알찬 직업 추천

1. 비즈니스.. (아카운팅,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2. 건강과 메디칼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약사 보조직, 의사 보조직)
3. 기술직 (컴퓨터 그래픽과 데스크탑 출판)
4. ESL (기초, 중급, 상급반으로 나누어서 각 4-6등급의 반이 구성됨)
5. 유학생 1-20만불, 소액 변호, 워킹퍼미트 도와드립니다

상담: 플라워 박

**130년 역사**

**〈상담필수예약〉**

대표전화 (323)556-5386  
Cell. (213)434-8128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유자격자

6435 Wilshire Bl, LA, CA 90048 (5층) (월서+La Jolla, 버스 20번)

## 남가주사랑의교회 '목적이 이끄는 40일' 준비 한창

지난 토요일(29일) 아침 8시 남가주사랑의교회 새신자실, 토요일 아침예배가 마치고 속속 모여드는 발걸음 따랐다. 들어서보니 저마다 간절한 기도로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모습이다. 무엇인지 더욱 자세히 들여다보니, 새신자들을 위한 '목적이 이끄는 40일' 담당 사역자들의 준비모임이었다.

릭 워렌 목사의 베스트셀러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저서로 시작된 40일 캠페인은 기독교인이라면 한번쯤 들어보았을 일. 새신자나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창조 목적을 알게 하여 그 목적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일깨운다. 그에 앞서 캠페인을 이끌어갈 교회 스태프들이 먼저 기도하고, 주시는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준비한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삶을 전하기에 앞서 나 자신부터 목적대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2월 27일부터 4월 17일까지 8주 동안 진행되는 40일 캠페인을 위해 5주간의 사전 모임을 갖는다. 40일 캠페인 담당 강신욱 장군에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삶을 전하기에 앞서 나 자신부터 목적대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말했다. 강 장로는 특별히 남가주 사랑의교회 뿐만 아니라 '목적이 이끄는 40일'을 원하지만 여건이 안 되는 미자립교회도 도움 계획이라고 했다.

40일 캠페인 담당 총무 윤원오 집사 또한 "예배, 교제, 훈련, 사역, 전도 등의 목적을 깨닫고 어떻게 실천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공부한다"며 "참여하는 스태프, 담당 목회자, 성도들 모두가 은혜 받고 새로워지는 기간"이라고 말했다. 남가주사랑의교회는 지난 2005년 전교인을 대상으로 '목적이 이끄는 40일'을 진행한 이래, 미처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이나 새신자들을 대상으로 매년마다 개최해 오고 있다.

〈박상미 기자〉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해민,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헌,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조요한 편집국장 : 지재일 광고국장 : 이인규  
지사망 : LA, NY, SAN FRANCISCO,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SEATTLE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팩스번호 : (213) 739 - 0408  
주소 : 3600 Wilshire Blvd., #1030 Los Angeles, CA 90010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변호사**

- ▶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환영
- ▶ 이민국이 부당하게 부결시킨분, 항소 하실분
- ▶ 추방위기에 처한분, 과거범죄기록있는분,
- ▶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 ▶ 종교비자, 종교이민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배춘, 강도, 절도범, 경제범죄, 마약, 음주운전, 사기, 미성년범죄, 배우자 폭행, 범죄기록 조회 및 말소이혼

- 이민국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결된 분
- 이민국에 항소중에 있는 분

(부당한 해고 일로 및 오버타임 미지급)  
**한국어 문의 (213)364-0779 티나킴**

전화 213.364.0779 (24시간) 213.736.6696 / 3600 Wilshire Blvd., #204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Claire H. kim & Associate.

**헤어칼라 전문점**

앞서가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마이스타일 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 칼라 \$30 up \$10 up**  
\* 단, 칼라만 하시면 \$30.00

**매직스트레이트 \$100 up**

프로페셔널- 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마이스타일 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가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HAIR SKIN**

3800 Wilshire Blvd., #2076 L.A., CA 90010 Tel: 213-739-1022  
스킨케어: Tel: 323-919-3994 •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00 AM ~ 10:00 PM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 헤어 칼라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밤 10시까지 영업 (퇴근후 찾아오세요)**  
LA 최고의 워치-머리론드 샵 2층 **월서+웨스턴 코너**



◆ 남가주한인목회자 신년목회세미나 성황

#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최우선 순위”

남가주한인목회자 신년목회세미나 및 평신도신년축복성회가 지난 27~29일 리폼드대학교(총장 조주호 목사)에서 개최됐다. 아울러 저녁시간에는 평신도 대상 신년축복성회가 이어졌다.

주강사로 초청된 김성길 목사(수원 시온교회 담임)는 '그리스도를 닮자'라는 주제로, 최홍주 목사(에브리데이교회 담임)는 '교회를 부흥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눔'이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루디 케를로(Dr. Rudy Cerullo) 총장이 크리스천 카운슬링을 위한 '영혼의 치유(Healing of the Soul)'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김성길 목사는 27일 저녁 성회에서 '먼저 구할 것(마태복음 6장 33-34절)'이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인



(왼쪽부터) 리폼드대학교 총장 조주호 목사, 시온교회 담임 김성길 목사, 리폼드대학교 교무처장 김원락 목사

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 영광 위해 사는 것"이라며 "성도들의 신앙생활 중 유일성수, 십일조 생활, 주님을 대하듯 이웃 섬기기 등의 신앙훈련을 철저히 하라"고 강조했다.

평양 출신인 김 목사는 6.25 전

쟁 당시 수원으로 피난온 후 가족과 생이별을 하며 13년간 고아원에서 생활하며 어려운 가운데 철저한 신앙심을 놓치지 않았던 시절에 대해 은혜로운 간증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성회 후 인사말을 전한 조

주호 총장은 리폼드대학교에 대한 소개를 전했다. 미 육군 특수부대 출신의 조 총장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철저히 훈련된 특수전사가 필요한데, 리폼드대학교가 바로 그러한 영적 전쟁에 승리하도록 이끄는 지도자를 양성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신학, 목회학 등의 과정을 1844년 청교도 정신으로 설립된 올리벳칼리지(Olivet College) 등 미국 주요 신학대학교와 연계 과정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76년 설립된 리폼드대학교는 칼빈 신학사상에 기초한 개혁신학의 전통을 지켜가고 있으며 하나님 중심의 예배관, 성경중심 신앙관, 개혁주의 신학, 목회와 선교의 열정을 갖춘 사명자를 양육해 미주 지역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독교 지도자 육성 교육 기관이다. 2011년 신입생 및 편입생을 수시로 모집 중이며 원서 접수 2월 12일(토) 마감된다.

\*문의) 교무처장 김원락 목사 (818-337-8280)

(지재일 기자)

## 서울신대 박영환 교수 초청 '북한 선교' 포럼 열린다



북한선교 전문가이자 서울신대 선교학 박영환 교수 초청 제 24회 성경포럼이 2월 7일(월) 오전 10시 30분 미주성결대학교 채플(임마누엘선교교회 내)에서 개최된다. 이번 성경포럼의 주제는 '북한 선교의 전망과 방향성'이다. 박영환 교수는 △남북관계의 단계적 변화의 요인과 내용 △남한정부의 대북입장과 방향성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기독교의 역할 등에 대해 발제하고, 결론적으로 한국의 기독교가 남북관계와 북핵 위기를 넘어 지향해야 할 상생과 공영의 길을 조망한다.

이후 김수철 목사(소중한사람들 대표)와 김병호 목사(햇불교회)는 찬양으로 나서며, 질의응답 및 의견발표 형식의 자유토론에 참석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 선교에 관심 있는 목회자나 선교사, 신학생 평신도 등 누구나 참여 대상이다. 성경포럼은 온전한 구원, 거룩한 생활(Full Salvation, Holy Life)을 지향하며 1년에 한 번씩 다양한 주제로 개최되고 있다. 문의: 323) 643-0301 (미주성결대) (박상미 기자)

## 자생한방병원 美 주류 병원과 최초로 의료협력 체결



(사진 왼쪽)자생한방병원 윤제필 원장, (가운데)올림피아 메디컬센터CEO 존 칼레론(John A. Calderone), (오른쪽)찰스 김 이사.

척추전문 자생한방병원(원장 윤제필)이 대한민국 한방병원으로는 최초로 미국의 대형 주류병원과 의료협력을 체결, 한의학의 주류 진출을 알렸다.

지난 27일(목) 자생한방병원은 협력을 체결한 올림피아 메디컬센터(Olympia Medical Center)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사

실을 알렸다. 이번 협약으로 자생한방병원 한의사들은 올림피아 메디컬 센터의 정식 의료진으로 인정받게 되고 양방의사와 같이 입원과 외래 환자에 대한 양한방 협력진료를 시작하게 된다.

윤제필 원장은 "미국의 주류병원과 양한방 협진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한의학이 주류사회에 진출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발전해나가는 성공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뿐만 아니라 "한의학에 대한 불신풍조가 사라지고 새롭게 인식되어지는 계기"라며 "한의학의 우수성은 또 하나의 한류가 되어 미 주류사회에

계 뻗어갈 것"이라 전했다. 자생한방병원과 체결을 맺은 올림피아 메디컬 센터의 CEO인 John A. Calderone(Ph.D)은 "이번 협력으로 환자들에게 한방의 비수술 척추치료를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어 환자의 치료선

택 폭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한인사회에도 우수한 올림피아 메디컬 센터의 의료진을 소개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응급치료 분야 미국 내 상위 5%(Health Grades 발표)에 속하

### 윤제필 원장 "한의학의 주류 진출, 또 다른 한류가 될 것"

면서 204개 병실과 응급 치료 및 수술 시설을 갖춘 올림피아 메디컬 센터는 63년 된 미국 대형 주류병원이며, 척추관절 치료 및 연구 센터, 소화기 장애 센터, 스포츠 의학 센터, 부상 관리 및 고압 치료 센터, 노인건강 센터, 반사

및 기억 연구센터 등이 있다.

자생한방병원 역시 한국 강남본원의 전문 의료진이 파견되어 비수술 디스크 치료법 그대로 맞춤형 진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MRI, CT, 초음파, X-RAY등의 검진 기기를 갖추어 양한방 통합 원스톱 진료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허리, 목 디스크, 협착증, 퇴행성 관절질환, 스

포츠 상해, 비만 및 불임, 청소년 축만 및 자세교정, 성장 등의 전문 클리닉과 보약원 등을 운영한다. 자생한방병원: 323) 677-4900(LA)/ 올림피아 메디컬 센터: 310) 657-5900

(박상미 기자)

**메디케어 수혜자 들게 알립니다!!**  
**2011 처음 메디케어 A와 B를 받으시는 분**

GUARDIAN ANGELS INSURANCE AGENCY 수호천사보험  
 CA LIC #0G67882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HMO)**  
 • 치과 • 처방약 • 한방침술 • 안경  
 • 해외여행시 응급비용지원  
 • 헬스클럽 멤버십 • 교통편 제공 등

**무료상담 : 213-503-6897 (폴선)**

**교회 행사 용품을 한곳에서**

배너 포스터  
 교회, 임직패 감사패, 트로피 명찰 일체

간판부 Tel : (626) 965-6997  
 행사용품부 Tel : (626) 810-2621  
 19241 E. Colima Road, Rowland Heights, CA 91748

동부사인&트로피

**트리니티 미디어**

예배를 위한 음향, 영상, 조명

213-483-6500

E-mail: sales@trinitymediasolution.com  
 Address: 3130 Wilshire Blvd #419 Los Angeles, CA 90010  
 Website: www.trinitymediasolution.com | Fax: 213-483-6501

Trinity Media Solution

트리니티 미디어

예배를 위한 음향, 영상, 조명

213-483-6500

E-mail: sales@trinitymediasolution.com  
 Address: 3130 Wilshire Blvd #419 Los Angeles, CA 90010  
 Website: www.trinitymediasolution.com | Fax: 213-483-6501



# “킹덤 미니스트리 ‘기정’ 하나님 나라 위해 못할 것 없다”

## 인터뷰

### 유일한 가정사역 박사과정 히즈유니버시티 양은순 총장

최근 '가정사역'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수여한 대학이 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문 가정사역자 배출을 목표로 설립된 His University(총장 양은순 박사)이다. 위기에 처한 가정을 빈중해 주듯 가정사역자들

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오늘날, 오로지 전문 가정사역자들을 위해 설립된 학교가 가정사역 박사들을 배출해 내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끈다. 히즈유니버시티는 지난 2004년 설

립, 교육부 BPPE(Bureau for Private Postsecondary Education)로부터 학위인가를 받아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수여하는 정규 대학 및 대학원이다. 한국의 가정사역에 있어 대모로 불리는 이 학교의 총장

양은순 박사는 히즈유니버시티의 모체격인 HOME(Home Operational Mobilization Education)을 서울에서 창립(1987년)하고 지부들을 설립하면서, 수많은 가정 전문상담자들을 길러낸 인물이다.



히즈유니버시티 총장 양은순 박사

#### ◆ 가정사역이라는 특화된 분야의 대학을 설립한 이유가 있습니까?

흙 사역과 함께 대학교 상담대학원 원장을 담당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 거의 식물인간이 되어 남편의 치료를 위해 미국을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설립되어 운영되던 흙은 전국에 지부를 설립하면서 많은 가정전문 상담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상담사로 채용되기도 하구요. 그러나 이들의 성과를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학위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남편의 치료를 위해 온 미국에서 대학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흙을 모체로 Home International School에서 약자를 위해 His University가 되었습니다.

#### ◆ 가정사역이라는 말조차 생소하던 시절이었을 텐데 특별히 가정사역에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1976년도부터 가정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가정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서울의 충현교회에서 사흘 동안 했는데, 두 명은 외국인 감사였고 저만 한국인 감사였죠. 전 모두가 잘 살거라는 기대와 축복 속에 1970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될 줄 알았죠.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해보니 그냥 저절로 잘 살아지는게 아니었습니다. 부부싸움을 많이 하게 됐죠. 결혼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당시 말씀사에서 일했던 남편이 원서들을 가져와 번역을 부탁했습니다. 결혼과 가정에 대한 크리스천 서적들이었는데 번역하면서 제가 은혜 받았죠. 제 자신도 변하기 시작했지만 번역한 책들을 퍼내면서 알려지게 되었고

강사로 초청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총신대에서 세미나를 하게 됐는데 많은 학생들의 호응을 받았죠. 그것을 지켜본 남편이 제게 은사가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아내를 가까이 내어 주었습니다.

#### ◆ 그러던 남편이 사고를 당했다고 하셨는데요?

두뇌를 다쳐서 흔히 말하는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기적적으로 90%이상 회복하셨습니다. 회복과 치유의 과정은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포기하려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회복하게 되었고, 이런 남편의 사고와 회복의 케이스로 논문을 썼고 박사학위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모든 고비 하나 하나가 스토리입니다.

#### ◆ 그렇게 드디어 꿈꾸었던 대학을 미국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에 시작해서 인가를 받고 첫 박사학위자들을 배출해내기까지 그 기간이 상당히 빠르는데요?

대학을 설립하는 일이 쉽지 않은데 그것도 외국인 신분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대학이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렇게 되었다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교육부의 인가는 마치 우리 대학과 같은 학교가 생기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감사 나왔던 담당자가 학교를 위해 컨설턴트까지 해주신 등 돕는 자들이 많이 보내주셨어요. 이후 미 연방정부로부터 이혼 방지를 위한 결혼 교육을 위해 수백만 불의 펀드를 받고 있는 CHMC(California Healthy Marriage Coalition)로부터 지원도 받게 되어, 흙 인터내셔널을 비영리 단체로 등록, 본격적

인 가정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즈의 재학생 및 졸업생들은 물론 가정사역에 관심 있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흙 정신으로 봉사하고 훈련 받을 수 있는 사역의 장이 대학 내에 마련된 것입니다.

#### ◆ 정식 학위와 그것을 바탕으로 사역할 수 있는 필드까지 마련된 셈이네요. 놀랍습니다. 학교 자랑을 좀 더 해 주시겠습니까?

가정사역에 대한 유일한 박사과정, 이중언어 교육, 경험주의 학습법 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정사역으로 박사학위를 주는 유일한 대학일 것입니다. 이중언어 교육은 바로 자신의 모국어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공과목과 결혼가족치료사(MFT) 부분이지요. 교육부에 모국어로 할 수 있도록 인가를 요청했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족들이 모국어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험주의 학습법은 말 그대로 경험을 토대로 한 수업방식입니다. 실패의 경험이란 아픈 경험이란 모든 것이 교육을 위한 자료가 됩니다. 일반적인 학문은 시간이 지나면 도태되지만 상담분야는 연령이 늘어갈수록 경험이 많을수록 더 큰 도움이 되는거죠. 심리학이 상당히 어려운데 경험주의 학습법을 적용하면 쉽게 가르쳐 줄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학위 받으려고 힘겹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떠나기 싫을 정도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단기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학교에 등록하시고 석사와 박사과정까지 도전하십니다.

#### ◆ 그렇다면 성경에 기초한 가정은 무엇입니까?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나는 것이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결혼이 나옵니다. 최초의 결혼이후 마지막 혼인예식이죠.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그 안에 가정의 히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관계를 모르면 성경을 깊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 된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인거죠. 가정은 마치 성경의 핵심으로 보여집니다. 킹덤 미니스트리와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정들이 모두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완벽한 가정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 ◆ 누구나 가정의 위기를 말합니다. 교회에서도 이에 대한 인식을 하고 가정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인교회들의 가정사역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강사를 초대해서 세미나를 하는 정도입니다. 필요성은 느꼈지만 사실상 가정사역이라는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목회자들의 가정만 보아도 심각한 경우를 많이 접합니다. 노후를 못하니 안에서 굶아 터지고 사모들은 우울증에 빠지구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겠습니까? 전문가들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한계가 있고 한인들에서는 비밀보장이 어렵습니다. 가정사역은 평신도나 목회자나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나의 가정부터 건강하게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 위주의 가정사역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가령 부부학교라면 남편이나 아내가 없는 가정일 경우에 그 자체로 소외감을 주고 상처를 주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가정사역은 교회마다 맞는 옷을 입어야 하고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사역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몇몇 문제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한 조각의 사역이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가정이란 킹덤 미니스트리와 같습니다. 가정사역의 시작은 성경에 기초한 가정에 대한 개념부터 달리하는 것인데, 경험상 이러한 작업은 3년 정도 걸립니다. 히즈에서는 이 같은 다양한 패턴과 사례들을 연구

하고 앞으로도 계속 논문으로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로컬 처치들의 자문과 조언 역할을 해 줄 수 있습니다.

#### ◆ 마지막으로 히즈유니버시티는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히즈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하나님의 자원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장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정이라는 개념 없이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목표는 평안입니다. 남북통일 세계평화는 오직 미국에 있는 한국인이 미국의 자본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정은 인류의 공동 테마이면서 소중한 코어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면 못할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홈페이지: www.hisuniversity.org /전화: 951) 372-8080 <박상기 기자>

- ① 차량 구입하시면서 다운페이가가 없으세요?
- ② 무슨 차종을 선택할까 고민이세요?
- ③ 낮은 페이먼트 원하세요?
- ④ 크레딧이 나쁘세요?

지금 전화 하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puente hills  
Hyundai**

11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이 고객님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용자, 차종 설정, 저렴한 페이먼트

**FLEET MANAGER 찰리 정**

☎ 213-276-8959

e-mail : usajyk@gmail.com

##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절세의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을

세금고민으로 부터 해방시켜 드립니다.

1. 세금보고 및 세무상담 유학생을 위한 세금보고
2. 국제/국내 비즈니스 컨설팅 투자이민 E-2
3. 세무감사 대행서비스
4. 온라인 상담 ( www.chungycpa.com)
5. 공증

**상담환영 : T (213)387-2004**

**주소 : 3130 Wilshire Bl. #405 이정운공인회계사&공증**

## 2010년 유아교육과 학생모집

Day Care, 프리스쿨,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개월 코스(월-금 매일수강 및 실습)를 마치면 교사, 원장의 자격이 됩니다.

강의 시작: 2011년 2월 13일(월)

한 생명의 귀중함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린 시절은 인간의 전 인격 발달의 절대적 중요한 시기입니다. 본교는 영아, 유아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교사 및 원장의 올바른 자세와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사가 어린이들의 미래를 밝게 합니다. 지금 선택하십시오. - 학장 이정일

**본교의 특징**

- ▶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과 실력을 갖춘 교수님들이 강의함
- ▶ 바른 자녀교육을 통하여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가르침
- ▶ 같은 장소에서 17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음
- ▶ 수료후 취업을 알선하며 창업을 지원함
- ▶ 본교 부설 어린이 학교가 있음(현장실습)
- ▶ 통신으로도 할 수 있음

**본교 소개**

- ▶ 많은 졸업생들이 현재 프리스쿨에서 일하고 있음
- ▶ 1100명이 넘는 졸업생 배출, 높은 취업률
- ▶ South Bay Worldforce Investment Board 에 가입
- ▶ 캘리포니아 주정부 인가

**International Christian Education College**

Serving People In Child Care Industry Since 1991 / www.icecusa.com / icecusa@yahoo.com

유아교육대학 Tel. (213)368-0316,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A, CA 90010 (월서 + 웨스턴)



[새벽강단 29] 안디옥장로교회 새벽예배

# 다니엘의 '오직' 신앙

한국교회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새벽예배. 한국교회 부흥의 첫 번째 원동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척교회부터 대형교회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의 신앙성숙과 더불어 부흥을 소망하는 곳에는 새벽예배의 열기가 더욱 뜨겁다. 이에 기독일보는 남가주 한인교회들의 새벽 설교를 집중 조명하여 새벽 제단에서만 내리는 특별한 은혜를 나누고 개교회를 넘어 지역과 미주 전역의 부흥을 함께 소망하고자 한다.

올해로 창립 35주년을 맞이하는 안디옥장로교회(담임 지윤성 목사)는 지역에서 새벽기도를 가장 먼저 시작한 교회이다. 새벽기도회에 오는 타교회 교인들이 1/3을 차지할 정도로 새벽기도에 대해 정평이 나있다. 원로목사부터 현 담임목사까지 새벽에도 주석 설교를 하는 것이 전통이며, 오랜 기간에 걸쳐 신구약

〈본문: 단 9장 1~7절〉 성경은 오래된 책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책 속에 열린문의 축복을 주시는 원리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2~3천 년의 책이지만 같은 방법으로 복으로 주시고, 구원을 하십니다. 사람이 달라진 것 같지만 죄된 인간은 예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마귀의 수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만 다를 뿐 영적인 문제는 다 똑같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생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중 한사람이 오늘 본문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1~6장까지는 다니엘의 생애에 대해 나옵니다. 6장 28절을 보면 '행통하였더라' 했습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에는 왕조가 두 번 바뀌었고, 네 명의 왕이 거쳐 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통하였다고 합니다. 다니엘 10

여 하루 세 번씩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다니엘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전을 늘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군이 좋고 사는 환경이 좋아서 이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10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했습니다. 언제나 다니엘의 삶에는 위기가 있었지만 그냥 무마하려 하지 않고 절대 순종을 택하고 결단했습니다. 그러니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아도 더욱 아름답고 살찌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어려움과 위기를 기도로 극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감사했습니다.

## 안디옥장로교회 지윤성 목사 "열린문의 축복을 받는 신앙인이 되자"

을 완독하기에 힘쓴다. 안디옥장로교회 성도들에게는 새벽기도에 대한 '성도의 의무'가 있다. 바로 '321기도'가 그것. 당회원, 권사, 집사들은 일주일에 3번 이상, 구역장이나 기관장은 2번 이상, 성도들은 1루 이상 새벽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지난 1일(화)은 특별히 2월의 월 샅 기도도 드렸다.



지윤성 목사

장을 보면 금식하면서 뜻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옵니다. 10장 11절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다니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천사가 말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였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돌보심을 받는 자들이 바로 우리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냥 찾아와서 은총을 주시고 일평생을 행통하게 하셨을까요? 갈라디아 6장 7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단 6:10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서로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감사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은 없습니까? 혹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한 일을 막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문을 닫지 마십시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행통한 삶을 살 수 있는 원리인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도 다니엘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약속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랄 때, 열린문의 축복이 임할 수 있습니다. 2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박상미 기자)

# 한의술과 복음으로 세계 의료선교사 배출



전세계 의료선교를 강화하기 위해 미주 글로벌 아시아 메디슨 학술 선교대회(GAMA)가 지난 1월 29일 발족했다. 이날 대회에

과대학교(총장 김성일 박사) 개교 5주년 및 졸업 축하 예배를 드렸다. 예배 2부 순서로는 소아시아와 이스라엘, 미국내 중동인,

재하는 학교"라고 소개하며 "특히 의료 기술로 해외 선교현장에서 가난한 자들을 치료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사명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날 졸업 예배에서는 총5명의 한의 의료 선교사를 배출했다. 졸업생 대표 메시지를 전한 임영창 씨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선교하면서 의료 선교의 필요성을 느껴 공부를 하게 됐다"며 "앞으로 이슬람 지역에서 의술을 통해 사람들을 치료하며 선교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재일 기자)

## 골든스테이트한 의과대학교 개교 5주년 및 졸업 예배 드려

서는 GAMA, 소아시아, 카자흐스탄, 중국 의료선교 보고시간이 마련됐으며 비만관리, 한방 성형 등 임상 발표도 함께 진행됐다. 30일에는 골든스테이트한의

미국 의료교육 등에 대한 의료 선교 간증보고 시간과 3부 임상 발표시간이 마련됐다. 김성일 총장은 "골든스테이트한의과대학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

## 캘리포니아-태평양 KUMC 연합 제직 수련회 열려

캘리포니아-태평양지방 한인 연합감리교회 연합 제직수련회가 지난 30일(주일) 월서연합감리교회(담임 정영희 목사) 본당에서 열렸다.

교회 제직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선교, 새가족부, 소그룹 리더 훈련, 연합감리교회 신령상직제의 임무와 역할 등 네 가지 강의를 자유롭게 선택해서 들었으며 이후에는 우광성 목사(은혜의강 연합감리교회, 캘리포니아-태평양연회 소속 남가주한인연합감리교회협의회 회장)의 인도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결단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이번 연합 제직수련회는 캘리포니아-태평양 한인연합감리교회협의회 평신도 훈련부(부장 오경환 목사)에서 주최했으며, 일 년에 한 번씩 개최하고 있다. 오경환 목사(평신도 훈련부



장, 밴나이스연합감리교회)는 "주여선교회연합회 찬양제가 3월 6일(주일) 개최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남가

(박상미 기자)

**결혼과 영주권 신청 합쳐서 \$700**

- ▶ **싼요금 이혼 \$250부터**
- 20년을 같은 장소에서 영주권 3000건
- 이혼 2500건 이상을 완벽하게 처리한 사무실임
- 각종 이민 수속, 각종 소송서류, 번역, 전과기록 정리
- 주정부 이민센터 #CF3512 LA에서 가장 정확하게 합니다.
- **속성 결혼신고 \$130**
- **가족초청 \$190**
- **영주권 수속 \$600**
- **이민변경 \$290**
- **시민권 수속 \$100**
- **공증 \$10**
- **가고파 김경일 법무사 (Lic#0504)**
- **T.(213)-252-0000**
- **3540 Wilshire Bl.#318, L.A., CA 90010**

**100% 믿을수 있는 대한민국 홍삼**

**HANSAMIN**  
website : www.korginseng.com

**Tel: (213)-384-0989**  
Free: 1-866-902-8282

**농협고려인삼 \* DAEDONG KOREA GINSENG CO., LTD.**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기독일보 창간 7주년을 축하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고객 감동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www.easy2424.com**



# 전 세계 무슬림 인구 20년 뒤 35% 증가 ↑

전 세계 무슬림 인구가 2030년까지 현재의 35% 가량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기독교 전문 리서치 단체 퓨 포럼에서 최근 내놓은 '전 세계 무슬림 인구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말까지 16억 명으로 전 세계 69억 명 인구의 23.4%를 차지하고 있는 무슬림 인구는 20여년 뒤인 2030년에는 전 세계 83억 명 가운데 22억 명으로 불어나, 4분의 1 이상인 26.4%에 이르게 된다.

## 미국에서도 현재의 두 배로 늘어날 전망

늘어나는 무슬림 인구의 분포는 현재와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10년 말까지 무슬림 인구의 대부분인 60% 이상은 아시아 환태평양 지역에, 20%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 나머지 20%는 기타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에서 무슬림 인구는 아직까지 소수 커뮤니티로 남아 있다.

보고서는 2030년까지 무슬림 인구 수 증가가 두드러질 국가들을 함께 제시했다. 여기에는 미국과 이스라엘도 포함되어 있어 주목된다.

미국에서는 2030년까지 무슬림 인구가 두 배 이상 증가해 현재 260만 명(전체의 0.8%)에서 620만 명(1.7%)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금 미국 내 유대교인이나 성공회 신자 수와 비슷한 수치다.

실제로 이같은 인구 변동이 이뤄질시 미국은 2030년경 러시아와 프랑스를 제외한 어느 유럽 국가보다도 높은 무슬림 인구를 갖게 된다.

지난 20여년간 무슬림 인구가 급증해 온 이스라엘에서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어 2030년 경에는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인 23.2%가 무슬림이 될 것으로 보

인다. 1990년에는 14.1%(60만 명), 2010년에는 17.7%(130만 명)가 무슬림이었다.

유럽의 경우 2030년에 이르러 전체 인구의 8%를 무슬림들이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현재는 6%), 국가별로는 러시아가 1,860만 명으로 가장 많은 무슬림 인구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그외 프랑스에서는 현재 7.5%에서 10.3%로, 영국 4.5%에서 8.2%, 벨기에 6%에서 10.2%, 오스트리아 5.7%에서 9.3%로 각각 증가율이 전망되고 있다.

아시아 환태평양 지역에서는 파키스탄이 인도네시아를 추월해, 최대의 무슬림 인구를 가진 국가가 될 것으로 보고서는 내

다봤다. 한편 보고서는 늘어나는 무슬림 인구가 어떠한 성향의 이슬람을 추종할지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았다.

세계복음연맹(WEA) 북미지역 이사이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종교자문위원인 조엘 헌터 목사는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크리스천포스트(CP)에, "연구 결과는 어떤 이들에게 단지 사회학적인 흥미만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이들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며 "기독교인들은 이를 통해 세계 복음화의 증가하는 요청을 다시금 떠올려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순현정 기자〉



최근 CNN의 '파이어즈 모건 투나잇'에 출연한 조엘과 빅토리아 오스틴 목사 부부.

## 조엘 오스틴, 처음으로 '죄악'에 대해 언급

설교나 글, 인터뷰 등에서 한 번도 '죄악'에 대해 다룬 적이 없었던 조엘 오스틴 목사가 최근 CNN 방송에 출연, "동성애는 죄(homosexuality is a sin)"라고 언급한 것이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WP)를 비롯한 주요 일간들과, 크리스천포스트(CP) 등 교계 신문들은 이같은 발언

강조한다는 비판을 받아 오기도 했다. 그러나 오스틴 목사는 최근 CNN 토크쇼 프로그램인 '파이어즈 모건 투나잇(Piers Morgan Tonight)'에 출연, "동성애가 죄악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믿고 있고, 늘 그렇게 믿어 왔다"고 답했다.

그는 "나는 동성애자들을 차별하고 그들이 끔찍하다

지에 대해, 그리고 살아가면서 선한 선택들을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답했다.

이날 오스틴 목사는 최근 발생한 아이오와 주 총기 난사 사건 등 선과 악에 대한 주제들에 대해 질문들을 받았다.

한편 변역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일부의 비판에 관해서 오스틴 목사는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대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축복을 받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어려움에 처하기를 원하신다고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당신이 축복받기를 원하신다고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며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위대한 것들을 계획해 놓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내가 성경에서 본 것이며 믿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순현정 기자〉

## 방송에서 "동성애는 죄" 발언해 주목

이 그동안 오스틴 목사가 전해 왔던 중립적이고 포용적이다 못해 때로는 모호하기까지 느껴졌던 메시지들과 대조를 이룬다며 일종의 놀라움을 표현했다.

오스틴 목사는 보수주의자들로부터 인간의 죄성을 깨우치거나 고난에 대한 기독교의 진리를 전파하는 대신 논란의 소지가 있는 신학적 문제들에 대해 답하기는 회피한 채 변역과 축복만을

는 그런 류의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성경은 동성애가 죄악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스틴 목사는 그가 단 한 번도 '죄악'이라는 말을 입에 올린 적이 없음을 지적받자, "나의 지식이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이 내게 새롭긴 하다. 사람들은 내가 죄악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대신 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 세계 기독교인들, 이집트사태 위해기도

이집트에서 반정부 시위로 인한 인명 피해가 사망자 100명, 부상자 1,000명 이상으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영국에서 이집트를 위해 기도하는 행사가 여러 교파와 교단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주일이었던 1월 30일 영국에 본부를 둔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기독교세계연대(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와 이집트기독교인들을위한연합행동(United

이 주최한 기도회에는 세계의 다양한 교파, 교단에서 5백여명 가량의 기독교인들이 모였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는 전했다.

이날 기도 행사에 모인 기독교인들은 이집트의 이같은 정치적 상황을 위해서도 물론이고, 종교 본부를 둔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기독교세계연대(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와 이집트기독교인들을위한연합행동(United

Action for Egyptian Christians)의 희생이 되고 있다.

행사에 참석한 영국 콕틱 정교회 대표 앙겔로스 주교는 이집트를 위해 기도할 때 "인간성의 붕괴가 치유되는 데 초점을 둘 것"을 요청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위해 기도한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지금 이 순간, 이집트 시위대와 진압대, 군부와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뤄지기를 기도한다"고 그는 말했다.

〈순현정 기자〉

## 미주성산교회



담임목사 : 방동섭

### 예배안내

-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0:30
- 3부예배 오후 1:00
- EM 오전 10:30
- 새벽기도 오전 5:30

“기독교일보 창간 7주년을 축하합니다”

1111 W, Sunset Blvd, LA CA90012  
T. (213) 975-1111 / F. (213) 975-1357

## 크로스로드교회



담임목사 : 전길성

### 예배안내

- 주일 1부 예배 오전 09:00
-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 주일 중고등부 (Youth Group) 오전 11:00 AM
- 주일 유년부 (SPARK) 오전 11:00
- 유치부, 유아부 오전 11:00
- 새벽 기도 매주 5:30AM (토요일 6:00AM)

“기독교일보 창간 7주년을 축하합니다”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627-0201 / F. (909) 627-0211





# 2011 One Voice 다민족 축제, 성황리 개최



베이지역 소수민족을 초청해 선교보고 시간을 갖고 한인 교회가 협력하는 2011 One Voice가 1월 29일에 Shannon Community Center에서 열렸다.

베이지역 소수민족을 초청해 선교보고 시간을 갖고 한인 교회가 협력하는 2011 One Voice가 1월 29일에 Shannon Community Center에서 열렸다.

베이지역 12개 소수민족이 선교보고를 각각 준비한 수준 높은 영상과 함께 전했다.

행사 마지막에 각 소수민족 교회 지도자들에게 교회개혁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후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서 One Voice Fund를 통해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각 베이지역 소수민족 사역자들에게 매달 총 2075불을 배분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One Voice 행사에서 총책임 맡고 준비한 유기는 목사(주순길 장로교회)는 "베이지역 몽골인 교회의 경우 재정 자립이 어려워, 목회자

가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힘겹게 이 지역 몽골인들을 섬겨왔다. 이분들을 조금만 도와줄 수 있다면,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으면서 마음 놓고 하루 종일 선교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한인인민교회가 많은 도움이 필요한 베이지역 소수민족 교회사역자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예배 찬양을 Joseph Baker(Harvest Valley Christian Church 찬양팀)가 인도하며, 사회를 소재현 목사(Bay Open Door Church)가 섬겼다.

찬양 이후에 저녁식사와 함께 선교 보고 중간에 한국전통문화를 소개하는 한국국악 공연, 태권도 시범, Good Shepherd Community Church 유스 프레이즈 팀 공연이 이어졌다.

유기는 목사는 "이번이 처음행사인데 잘 진행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런 동기와 마음으로 행사를 지속해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형진 기자)

# “탈북인들 먼저 복음 받아 북한 선교할 사명 있다”

## 뉴비전교회, 탈북민 교회 목회자 사모 간증특별집회 개최

한국내 탈북민 교회 목회자와 사모들의 찬양과 기도, 간증특별집회가 지난 1월 26일 약 600여명의 지역교인들이 참석하여 2시간에 걸쳐 열렸다.

한국탈북민교회연합회장 임창호 목사와 한구미 사모를 비롯해 국내 탈북민 1호 목사인 새터교회 강철호 목사, 열방생교회 이빌립 전도사와 이현희 사모, 부천 하나로교회 조은성 목사와 박영주 사모 등 7명이 인도한 이날 집회는 북한의 인권과 지하교회 상황에 대해 생생한 증언을 하였다.

현재 탈북민교회 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임창호목사는 "현재 한국에 약 2만여 명의 탈북민, 또 해외에 약 15만에 이르는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한국에 도착하기 위해 약 1000:1의 어려운 위기를 넘겼으며 최근 김정일 정권은 중국내 탈북자들을 색출, 복송하기 위해 체포조 수백 명을 중국에 파견하였기에 저들의 안전이 더욱 위험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제까지 한국에서 돈으로 저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김정일 정권은 수백만의 동포들을 굶어죽게 만들었고 수많은 동족들이 중국으로, 다른 나라로 살기위해 탈북하게 했다.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탈북민들이 사랑과 관심으로 저들에게 접근하는 것이며 이 길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에서도 이방인 취급 시 되는 탈북민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건네고 물질보다 따스한 마음과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이 전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2시간에 걸쳐 7분의 탈북민 목회자들과 사모들이 간증을 하고, 한국의 탈북민들과 탈북민교회의 실상을 알렸다. 국경지대의 탈북민 쉼터사역, 북한의 지하교회 및 지하교회 성도의 간증 영상도 상영했다. 또 이어서 미국의 한인교회들이 앞으로 다가올 통일시대와 세워져 나갈 북한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도 나눴다.

이들은 "현재 한국내에 탈북민을 위한 교회가 전국에 12개가 세워져 있고, 탈북민들이 한국에서 제대로 적응하고 북한선교를 위한 준비를 위해서 이런 탈북민교회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탈북민들이 북한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있고 이들이



한국내 탈북민 교회 목회자와 사모들을 위한 간증특별집회가 산호세 뉴비전교회에서 지난 26일 6백여명의 지역교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여 북한의 가족과 친지들에게 저들의 문화와 용어로 전도해 북한선교와 남북통일을 올바르게 준비하는 사명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약 600여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열기가운데 순서가 진행되었고 헌금된 모든 금액 \$14,082.67를 전달했다. 참석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탈북자들을 통해 북한사람들이 바로 타문화권의 선교대상임을 알게 됐고 또한 북한의 실상에 대해 더 많이 더 올바르게 이해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들은 1월 21일부터 2월 4일까지 전 미주를 순회하며 미국연수를 하며 남가주 베델한인교회에서 시작, 산호세, 워싱턴DC, 휴스턴 등을 방문한다.

탈북민목회자연합회는 2006년 창립돼 국내외 해외에 있는 탈북민 전도와 제자양육, 북한 제과송 등의 사역을 전개해왔으며, 북한복음화의 지휘본부 역할, 북한선교를 위한 사역자 양성, 북한기독교의 교단 단일화 등의 비전을 갖고 앞으로 한국교회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국내 2만명 탈북민 복음화의 비전을 나누고 통일선교학교, 심포지엄 등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뉴비전교회는 2월 6일 창립 30주년을 맞아 기념예배 및 이진수 목사 취임예배를 드린다. 또한 3월 4일부터 6일까지 베델한인교회 담임 손인식 목사를 초청해 창립기념 부흥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임형진 기자)

## “북한 수용소에 관한 실상” 세미나

시애틀 서광교회(담임 김철곤 목사)는 오는 2월 27일(주일) 오후 4시 탈북자 신동혁(27)씨를 강사로 "북한 수용소에 관한 실상"이란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

신동혁(27)씨는 2005년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를 탈출한 탈북자로 1982년 평안남도 개천시 14호 관리소에서 태어났다. 그는 6·25전쟁 당시 아버지의 형제 두 명이 월남했다는 이유로 수용소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탈출하기 전까지 한 번도 수용소 외부 세상을 구경한 적이 없었다.

1996년 11월 탈출을 시도하다 어머니와 형이 공개 처형됐으며, 가족들의 처형현장을 직접 목격

했다. 당시 14세였던 신 씨는 이 사건으로 불고문을 받았고 신 씨의 아버지는 고문을 받아 불구가 됐다.

신씨는 "북한의 수용소는 인간이하의 삶을 강요당하며 평생 외부세계와 단절된 채 수용소에

서 태어나 생을 마감하고 있다"며 "아무런 권리도 없이 중노동과 굶주림, 매질만 강요당하는 홀로코스트와 같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실상을 알리고자 한다"고 전했다.

김철곤 목사는 "미주 한인들이 한반도 문제와 북한 인권에 대해 좀 더 심각성을 깨닫길 바라는 취지에서 이번 세미나를 기획하게

됐다"며 "통일을 향한 막대한 구호가 아니라 북한의 인권 실상을 바로 알고 통일을 향한 길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는 서광교회 남선교회가 주관하고 본지를 비롯한 서북미 각 언론기관에서 후원한다. 문의: 425-773-9307

(김브라이언 기자)

**컴퓨터 무료 견적, 수리후 3개월 안에 문제 생기면 무료 서비스!!**

**사이버텍 컴퓨터**  
www.computer-ctc.com

**PC & MAC on Sale! (Compare Price)**  
- 한/영 키보드 \$1 세일 (12월 31일 까지)  
- Ko/En Keyboard \$1 SALE! (sale ends Dec. 31)

컴퓨터 교육! 인터넷, 오피스, 사진반 월수금토 / 오전:10시-12시

T. 714-590-9504 아리랑미텔 몰 한국일보 2층 (9562 Garden Grove Blvd #Q, Garden Grove, CA92844)

# 뉴라이프선교교회



담임목사 : 박영배

### 예배안내

- 주일예배(KM) : 오전 11:45
- 주일예배(EM) : 오전 10:00
- 주일학교 : 오전 11:45
- 중고등부 : 오후 7:30(금)
- 청년부 : 오후 7:30(금)
- 수요예배 : 오후 7:30
- 새벽기도회: 오전5:30(화-금), 오전6:00(토)

“기독일보 창간 7주년을 축하합니다”

905 S. Euclid St. #208 Fullerton, CA 92832  
12702 Ninth St. Garden Grove, CA 92840  
T. (714) 526-6562

# 하나로커뮤니티교회



담임목사 : 강일용

### 예배안내

- 주일예배 1부 : 오전 7:45
- 주일예배 2부 : 오전 9:30
- 주일예배 3부 : 오전 11:15
- 영어예배 : 주일 오후 1:00
- 금요찬양예배 : 오후 8:00
- 주일학교 : 오전 9:30, 11:15
- 중, 고등부 : 주일 오전 9:30, 오전 11:15, 금 오후 8:00
- 대학, 청년부 : 주일 오후 1:30, 금 오후 8:00
- 새벽기도 : 화-금 5:30, 토 6:00

“기독일보 창간 7주년을 축하합니다”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마지막 추수 때의 절박한 선교지, 중남미를 깨운다

중남미 지역을 선교의 열정으로 뜨겁게 달구고 있는 '2011년 중남미 선교 중보대행진'이 한창이다.

'내가 그 땅을 고칠지라'(역대하 7:14)를 주제로 1월 26일부터 2월 20일까지 4주간 멕시코,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에쿠아도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브라질 그리고 아르헨티나까지 총 9개국을 순회하며 인도하는 이번 집회는 남부플로리다한인연합감리교회(담임 장찬영 목사)와 보스톤 소재 임마누엘가스펠센터 바이탈리티프로젝트 소장 김종필 선교사, 도미니카 전제덕 선교사 그리고 코스타리카의 하비에르 목사의 네트워크로 연결된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연합해 중남미 교회들의 부흥과 선교를 위해 준비했다.

특히, 남부플로리다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는 남미와 가까운 지



'2011년 중남미 선교 중보대행진'

리적 이점과 특별한 소명을 갖고 지난 7년간 중남미를 품고 비전

방면으로 남미 선교를 진행해 왔다. 그 과정 가운데 지난 해 김종

필을 통해 "중남미 선교가 마지막 추수 때의 가장 절박한 선교"

## 2011 중남미 선교 중보대행진 한 달간 9개국 순회

트립, 단기선교 및 목회자 및 리더십 학교, 웨슬리중남미신학교, 엠마오캠프 그리고 교회 및 선교관, 기숙사, 선교센터 건축 등 다

필 선교사 초청집회와 7월 베네수엘라 마라카이보(Maracaibo) 스타디움에서 약 1만 명이 운집했던 초교과 연합중보기도 대성

하는 주님의 음성을 재확인하면서 이번 중보기도 대행진이 기획된 것이다.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중남미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건지기 위한 총체적인 그물짜기(Net-Working)가 이번 연합선교프로젝트인 '2011년 중남미 선교 중보기도대행진'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각 국가를 2~4일 가량 머물면서 첫날 밤 'Vision Empresarial'에서는 비즈니스 크리스천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 집회가 열리고, 둘째 날과 셋째 날에는 목회자와 교회 리더들을 초청한 'Liderazgo Global' 세미나가 진행된다. 세번째 집회가 마지막 밤일 경우 연합집회인 'Clamor por la Evangelizacion Global'로 모이게 된다. 주말이 있을 경우에는 중남미 현지교회 3~5곳에서 나누며 집회를 인도한다는 계획이다.

주최층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대략 매일 400~500명 가량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연합성회에는 많은 지역교회들이 연합하는 만큼 수 천명의 인

원이 모일 것이라고 밝혔다. 강사진으로는 김궁현 목사, 김기섭 목사, 김종필 선교사, 다니엘 박 교수, 박흥수 교수, 성백은 목사, 양종렬 목사, 오선일 목사, 이선자 목사, 이준성 목사, 장바울 목사, 장찬영 목사, 전제덕 선교사, 지용훈 목사, 하비에르 목사, 한기홍 목사, 호성기 목사, 황성주 박사(가나다 순) 등 각 분야, 각 지역을 대표하는 목회자들과 각 교회의 리더십들이 함께 참여하여 동역하게 된다. 남부플로리다한인연합감리교회 미션플로리다 박재범 팀장은 "이 대회를 통해 앞으로 미주 한인교회의 선교 네트워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더 나아가 중남미를 비롯한 세계선교의 효과적인 연합선교의 초석이 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미션플로리다 (Missionfl.org)  
사진제공 / 김종필목사

에틀랜타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영현 목사)와 에틀랜타한인목사회(회장 박성은 목사)가 공동 주최한 신년 목회자 세미나가 31일 오전 11시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담임 정인수 목사)에서 개최됐다. 강사로 나선 한국교회정보센터 김향안 목사는 2시간에 걸친 강의 동안 30년간 쌓아온 목회 노하우(Know How)와 노웨어(Know Where)에 대해 강론했다. 김 목사는 전체 85개 목회 노하우 중 이민교회 임상시험을 통해 적용이 가능하고 가장 필요한 6가지 목록을 소개했다. (요약)

### ▲예배 전후 기도

나는 부흥하나 어떤 예배를 가도 15분 전에 강단에 올라가 무릎 꿇고 기도한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조명을 밝히며 찬양단의 찬양이 시작된다. 예배 후에도 마찬가지이다. 예배를 마치며 '이제 하나님을 일대일로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자'고 격려하며 최소한 5분을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

### ▲교회의 만장일치

교회 표어를 아는 사람을 손들어 보라고 해보라. 보통 50%이상 손들지 않는다. 대부분이 30%미만이다. 교인들이 표어를 모르는

## 30년 목회 노하우가 단 2시간에 한국교회정보센터 김향안 목사 초청 세미나 성료



목회자 세미나 참석자들

이유는 목회자가 뽑았기 때문이다. 표어를 정하기에 앞서 12월 초 목회 방향을 설명하고 표어를 적어 내게 하라. 성도들이 낸 표어 중에 3개를 뽑으라고 해서 1번은 3점, 2번은 2점, 3번은 1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기라. 3천명 교회라면 500개 정도 나올 수 있다. 일주일 뒤에 그것이 50개로 줄고 그 다음 주는 10개 이하로 줄어든다. 그리고 3개가 나오고 1개가 남는다. 이렇게 정해진 표어는 성도들이 잊지 않는다.

### ▲새벽기도

새벽기도가 잘 안되면 1년에 1번 새벽기도 나오기 운동을 하라. 1년에 하루는 전 교인이 새벽기도를 나오는 것이다. 7월 4일 독립기념일로 정했다고 가정하자. 제목은 연합장로교회 대탈출 작전, 부제는 천국 가는 총연습이다. 참가신청서를 5월말부터 작성하게하고 참석자와 불참자를 게시판에 게시하라. 천국 가는 총연습인데 성도라면 참석하게 된다. 이것이 잘 정착되면 한 달에 한 번을 할 수 있다. 매월 첫 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더

지나면 한 주에 한번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으로는 매일 주제를 달리해 기도할 수 있다.

### ▲말씀 갖기

올해의 나의 말씀 갖기 운동을 하라. 송구영신 예배에 총력을 걸라. 송구예배를 드리며 강단에 올라가는 길에 카펫을 깔고 양 옆에 촛불을 둔다. 강단에서 정성을 다한 헌금을 드리고 그 옆에서 성만찬을 한다. 그리고 그 옆에서 올해의 말씀을 뽑게 된다. 1년에 하나씩 뽑고 외우게 할 수 있다.

### ▲순교현장

일주일에 한번은 교회를 나오는 운동이다. 교회의 각 장소에 담당자를 정해 적어 놓는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데 나는 교회에 한번이라도 나와 맡은 장소를 돌보아 하지 않겠는가.

### ▲고난주간

고난 주간은 1년 중 가장 중요한 절기이다. 교인들에게 그 의미를 실질적으로 알려줘야 한다.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가셨다. 교회 주차장부터 수건이라도 깔면서 교회로 입장하자. 월요일에는 성전을 청결케 하셨다. 이날을 1년 중 최고의 대청소의 날로 정하라. 화요일은 가정

## 자마 김춘근 장로, 교협, 목사회 임원 초청 간담회



자마 대표 김춘근 장로는 지난 1일 오전 11시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원기 목사),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회장 김용의 목사) 신·구 임원 초청 간담회를 대동연회장에서 진행했다. 이날 김춘근 장

로는 신·구 교협 목사회 임원 인사를 비롯해 전국 기도 투어를 보고하고 오는 7월 6일부터 9일까지 펜실베이니아 컨벤션에서 진행될 자마 대회를 소개하고 협력을 구했다.

(오상아 기자)

청결하게 하고 수요일은 기도와 침묵의 날이다.

목요일에 진심과 정성을 다해 세족식과 성만찬을 한다. 그리고 목회자는 금요일 오후 3시부터 토요일 12시까지 교회에서 예수

님의 수난을 묵상하며 기도하라. 그러면 교인들도 동참하게 되고 목회자뿐 아니라 교인들도 신앙이 한층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김앤더슨 기자)

## 미주개혁대학 개교 20주년 기념

# I-20 (F1비자) 학생 모집 합니다

\*최신의 영상시스템 \*최상의 학업 분위기 \*최고의 교수진으로 함께 수업 합니다

▶ 모집기간: 2010년 12월1 - 2011년 1월31일까지 (이 기간 특별 우대하여 드립니다)

▶ 모집학과: 신학, 선교, 문예창작, 종교음악, 목회상담

학교주소: School Address, 2706 Wilshire Blvd 1st Fl, LA CA 90057(월셔와 램파트)

Toll Free: 1-800-281-2123, Tel: 213-736-6500 Fax:213-736-6504 / Email:reformeduniversity@yahoo.com

Website:www.reformeduniv.org



남가주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 교회 및 선교회 리스트

**갈릴리션교회**  
 담임: 한천영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화-금) 오전 5:30  
 youth 오전 11:00 토요일합세배 오전 6:20  
 2212 S. Western Av, LA, CA 90018  
 T. (323) 735-6412 / www.gmcchurch.com

**감사한인교회**  
 담임: 김영길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장애인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영어장년부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매일 5:30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228-9540 / F. (714) 521-4636

**갯스월연합교회**  
 담임: 이희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여성성경회 오후 8:00  
 3부예배 오후 1:00 영아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부 오후 8:00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www.gwachurch.org

**그레이스웨이브교회**  
 담임: 송규식 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중고등부예배 오후 2:00  
 주일학교 오후 2: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1130 N. East St, #22 Anaheim, CA 92805  
 T. (714) 991-9881 / (714) 699-021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 진유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영아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 금예배 저녁 7:30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나성열린문교회**  
 담임: 박현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4부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  
 19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413-1600 / www.laopendoor.org

**나성한인감리교회**  
 담임: 남강식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Youth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20  
 3부 EM 오후 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4부 청년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후 5:30  
 433 S. Normandie Ave. LA, CA 90020  
 T. (213) 365-6191 / F. (213) 365-6291

**남가주광염교회**  
 담임: 정우성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저녁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성경공부 (화)오후 7:30, 1부 오전 5:30 2부 오전 6:30  
 (수) 오전 10:30 (토) 오전 6:30  
 4009 Wilshire Bl. #100-B, LA, CA 90010  
 T. (213) 598-0191

**남가주동신교회**  
 담임: 손병렬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청년)예배 오후 1:30  
 2121 E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남가주리디머교회**  
 담임: 김요섭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성경공부 주일 오전 11:00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T. (213) 215-8523 / www.scrdm.org

**남가주명성교회**  
 담임: 정해진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찬양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중고등, 유년부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111 S. Mariposa Ave., LA, CA 90004  
 T. (213) 383-9182, F. (213) 251-9182

**남가주빛내리교회**  
 담임: 박용덕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30 Youth 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영어(EM)예배: 오후 2:30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뉴월드임마누엘교회**  
 담임: 김승원 목사, MARY KIM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3부 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30  
 4055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993-4842(교회), (909) 993-2157(상담)

**대양장로교회**  
 담임: 류달영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1325 12th Ave LA, CA 90019  
 T. (323) 731-9819 / C. (213) 440-0125

**대흥장로교회**  
 담임: 권영국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청년예배 오후 1:00  
 2부예배(영어) 오전 9:45 중/고 주일학교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저부 주일예배 오전 11:0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www.dkpc.org

**들로스교회**  
 담임: 서보천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15(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중보기도회 오전 10:30(목)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www.douloschurch.com

**드림교회**  
 담임: 이성현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리브레이크커뮤니티교회**  
 담임: 강진웅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성경공부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1069 S. La Brea Ave, LA, CA 90019  
 T. (323) 930-1088 / F. (323) 930-0788

**미주비전교회**  
 담임: 이서 목사  
 1부예배 오전 8:45 영어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Alpha 저녁 7:30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 5:30(월-금), 6:00(토)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 92802  
 T. (714) 999-9900/http://www.visionccc.org

**미주성산교회**  
 담임: 방동섭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오전 10:30  
 2부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 오전 5:30  
 3부예배 오후 1:00  
 1111 W, Sunset Blvd. LA CA 90012  
 T. (213)-975-1111 / F. (213) 975-1357

**미주양곡교회**  
 담임: 지용덕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매일) 오전 5:3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519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 380-9377, F. (213) 380-9378

**베델한인교회**  
 담임: 손인식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4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9:30 (청년예배)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화-금 새벽 5:30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삼성장로교회**  
 담임: 신원규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전 11:20  
 2부예배 오전 9:40 4부예배 오후 12:50  
 5600 Carboncanyon Rd, Brea, CA 92823  
 T. (714) 524-2029 / F. (714) 524-8844

**소중한사람들**  
 대표: 김수철 목사  
 찬양-나눔예배 매일 오전 7:00(다문화 4기 Crocker St.)  
 1부가리예배 오전 7:00  
 2부선배예배 오전 9:30  
 1856 W 11th Place, LA, CA 90006  
 T. (213) 385-4515 / F. (213) 385-5474

**새생명오아시스교회**  
 담임: 김일형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EM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1:00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3-2939

**세계성경장로교회**  
 담임: 강진권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793-2297, 2298(Fax)

**세계소망교회**  
 담임: 오세훈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주일찬양 오후 1:30 새벽예배 오전 5:30  
 824 W. Venic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745-9191

**세리토스장로교회**  
 담임: 김한오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예배 오전 10:45  
 2부예배 오전 9:00 수요예배 오후 7:00  
 3부예배 오전 10:45 새벽예배(월-금) 오전 5:45, 토 6:00  
 4부예배 오후 12:40 주일학교 오전 10:45, 오후 12:40  
 11841 E. 178th St, Artesia, CA 90901  
 T. (562) 860-5451 / www.ilovecpc.org

**시온성중양교회**  
 담임: 박상규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화-금)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00 (토) 오전 6:00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995-2868 / F. (714) 995-0169

**씨니사이드교회**  
 담임: 조인수 목사  
 1부예배 오전 09:00 금요찬양: 매주 오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요일-금요일  
 영어예배 오전 10:15 오전 5:15 30분  
 1183 S. Hoover Stree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아름다운교회**  
 담임: 고승희 목사  
 1부예배 오전 10:00 3부EM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안디옥장로교회**  
 담임: 지윤성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오후예배 오후 1:45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3부예배 오후 12:30 주일찬양 오후 8:00  
 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  
 T. (818) 249-2871 / F. (818) 249-0516

**얼바인침례교회**  
 담임: 한종수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4부예배 오후 1:3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45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영광빛복음교회**  
 담임: 우대권 목사  
 주일예배 오후 1:30분 목요예배 오후 7:30분  
 주일학교 오후 1:30분  
 1200 W. Alvarez Ave., #A Orange CA 92868  
 T. (213) 291-5901 / (714) 833-2568

**영성장로교회**  
 담임: 김해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월서크리스천교회**  
 담임: 염규서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30  
 2부EM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634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05  
 T. (213) 384-4272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담임: 남성수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 찬양 오전 11:1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수요예배 오후 7:30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www.krcoc.com

**은혜한인교회**  
 담임: 한기홍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0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2:30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인랜드교회**  
 담임: 최병수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월-토) 오전 5:30  
 110 N.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주님세운교회**  
 담임: 박상규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20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 신승훈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4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님찬양교회**  
 담임: 장준근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2511 3rd Street, Los Angeles, CA 90057  
 T. (310) 940-1646 / F. (714) 397-2875

**청운교회**  
 담임: 이명수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월-금)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4465 Melrose Ave., LA, CA 90029  
 T. (323) 667-9920

**충현선교회**  
 담임: 민종기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코너스톤교회**  
 담임: 이종용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LA,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파사데나장로교회**  
 담임: 성현경 목사  
 영어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월-금) 오전 5:30  
 스페인어예배 오전 10:00 (토) 오전 6:00  
 한국어 오전 10시(월로우십일) 수요예배 오후 7:45  
 정오 12:30 분당 금요찬양 오후 8:00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함께하는교회**  
 담임: 최성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월-금) 오전 5:30  
 3부영어예배 오후 1:00 (토) 오전 6:00  
 14515 Valley View Ave, Suite T. Santa Fe Springs, CA 90670  
 T. (714) 236-0256

**SL 임마누엘선교회**  
 담임: 백지영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오후 3:00  
 찬양예배와 기도(매일) 오후 7:00  
 SOLOMON UNIVERSITY 총장: 백지영 박사(Ph.D.)  
 3921 Wilshire Blvd, #404-408 LA, CA 90010  
 T. (213) 381-7755 / F. (213) 380-7755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용역·괴문자 등 규탄

### 한기총 비대위 "길자연 목사 직무수행 중지하라"



(가칭)한기총개혁을위한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공동위원장 최귀수, 최충하, 신광수, 김병근, 김창수, 이광원, 김화경, 이은재, 박현수). ©류재광 기자

지난 한기총 제22회 정기총회 파행사태 이후 결성돼 길자연 목사의 대표회장 당선 이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던 한기총 개혁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칭, 이하 비대위)가, 2월 1일 기독교회관에서 재차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불법으로 한기총 대표회장의 직무를 수행 중인 길자연 목사는 즉각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이에 대해 직무정지가처분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진행 중이

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교회는 큰 위기라고 한다. 그 위기의 중심에 한기총이 있고 그 속에 우리 또한 있음을 고백한다"며 "지난 1월 20일 한기총 제22회 정기총회 정회 이후, 1월 27일 속회를 열기까지의 과정과, 그리고 어제 길자연 목사가 홀로 취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을 직시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들은 27일 속회를 전후

해 용역들이 한기총 출입을 통제하고 이광선 목사 등을 사칭하는 괴문자가 살포되는 등의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서도 "길자연 목사라 그와 함께 불법을 행하는 그들의 작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귀수 목사(공동위원장)는 "우리는 한기총의 잘못된 부분을 개혁하고 올바르게 이끌어가고, 법을 지켜나가는 자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나섰다"며 "한기총과 한국교회를 개혁할 때까지 결코 타협

하거나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비대위에 대해 계속되는 음해와 공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특히 개혁총회 이승렬 총회장이 자신의 교단 박현수 총무(공동위원장)가 이 사태에 대해 양심 고백하고 자진사임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당사자인 박총무가 직접 참석해 "이승렬 목사가 주장하는 양심고백은 모두 거짓"이라고 했다.

이번 총회 파행사태가 이광선 목사의 시나리오에 의한 것이라는 비난에 대해 신광수 목사(공동위원장)는 "우리는 이광선 목사의 편도, 길자연 목사의 편도 아니다.

오직 한기총 개혁을 위한 마음 뿐"이라며 "유언비어와 날조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은재 목사(공동위원장)는 "길자연 목사는 선거법을 세 가지나 위반했다"며 "이번에 이를 용인한다면, 앞으로 한기총에는 선거법을 위반해도 대표회장이 될 수 있다는 좋지 않은 선례가 남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류재광 기자〉

### 길자연 목사, 한기총 대표회장 취임 감사예배 드려

길자연 목사가 31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한기총 제17대 대표회장 취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에는 김선도, 이만신, 김창인, 립인식, 양병희, 이영훈, 엄신형 목사 등 교계를 비롯해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황우여 의원, 민주당 원혜영, 김영진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박선규 차관 등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길자연 목사의 한기총 대표회장 취임을 축하했다.

이명박 대통령, 조용기 목사 등은 각각 서면과 영상으로 축하를 대신했다.

길목사는 이날 취임사를 통

동안 한국교회에 약속한 공약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흔들리고 어려웠던 한기총의 모든 모습들은 전진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부흥하는 한기총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불필요한 충돌은 삼가고 모든 문제는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침몰되지 않는 배를 타고’를 제목으로 설교한 김선도 목사는 "한기총은 영적인 항공모함과 같다. 풍량이 심한 이 항해 중에 길목사님이 선장으로 키를 잡고 새롭게 출발하게 된다"며 "역사를 돌아볼 때 가라앉지 않은 배가 없었다.

큰 힘을 자랑했던 나라들도 모두 침몰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타신 배는 가라앉지 않는다. 한기총 역시 결코 침몰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축사는 문광부 박승규 차관이 대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2년 동안 한기총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구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본연의 사명을 다하며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며 "이제 한국은 세계사의 당당한 주축으로 우뚝섰다.

그 과정에서 한기총은 국가 발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사회통합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현장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취임하는 길목사를 축하했다.

〈김진영 기자〉

### 김선도 목사, 안상수 대표 등 교·정·관계 인사들 참석해 축하



길자연 목사의 한기총 제17대 대표회장 취임 감사예배가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열리고 있다. © 김진영 기자

해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한 이 시대에, 발전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한기총을 만들 것"이라며 "지배하는 지도자가 아닌 섬김과 희생의 정신으로 한기총을 사랑하고 한국교회에 봉사하는 일꾼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또 "1년의 짧은 기간

해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한 이 시대에, 발전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한기총을 만들 것"이라며 "지배하는 지도자가 아닌 섬김과 희생의 정신으로 한기총을 사랑하고 한국교회에 봉사하는 일꾼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또 "1년의 짧은 기간

해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한 이 시대에, 발전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한기총을 만들 것"이라며 "지배하는 지도자가 아닌 섬김과 희생의 정신으로 한기총을 사랑하고 한국교회에 봉사하는 일꾼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또 "1년의 짧은 기간

해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한 이 시대에, 발전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한기총을 만들 것"이라며 "지배하는 지도자가 아닌 섬김과 희생의 정신으로 한기총을 사랑하고 한국교회에 봉사하는 일꾼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또 "1년의 짧은 기간



### 이광선 목사측, 제22회기 정기총회 속회

#### 대표회장 인준 거부... 재선거 진행키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제22회 정기총회 속회가 27일 이광선 목사의 사회로 열렸다.

이날 속회에서는 지난 20일 이광선 목사의 정회 선언 이후 진행된 임시의장 선출과 대표회장 인준 등의 모든 상황이 불법·무효임을 결의하고, 길자연 목사에게 대한 대표회장 인준을 거부했다. 또 새 대표회장을 선출할 때까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제22회 정기총회 속회가 27일 이광선 목사의 사회로 열렸다. 속회에는 총 100명 인파의 총대들이 참여했고 위임을 받은 이들까지 합치면 1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된다.

이광선 목사 등 제21회기 임원들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것을 결의하고, 새롭게 선관위를 구성해

대표회장 선거를 진행하는 것, 불법행위를 하는 이들을 징계하는 것 등을 이광선 목사에게 위임했

다. 이들은 3월 17일 목요일 오후 2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대강당에서 속회하기로 하고 다시 정회했다. 이로써 한기총은 당분간 이광선 목사측과 길자연 목사측으로 나뉘어 대립할 전망이다. 이광선 목사는 정회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언제든 협력을 원하면 연합과 일치를 위해 양보하겠지만, 불법을 용납하거나 불의를 덮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속회는 이광선 목사 명의를 사칭한 취소 공고 문자가 살포되고, 한기총 직원들이 사무실 출입문을 잠그고 용역들이 출입 통제하는 등 많은 우여곡절 끝에 열렸다.

〈류재광 기자〉

# 자동차! 도네이션

남가주 지역 목회자, 선교사, 신학생을 위한 차량이 필요합니다.

[ 두번째 도네이션 자동차 ] 수혜자 : 최인후 전도사 (영암장로교회)



# 최일도 목사 “한국 대형교회의 모든 문제는…”

최일도 목사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대형교회의 모든 문제는 돈과 세습에서 비롯됐음을 잘 알고 있다”며 “다일복지재단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며

## “퇴직금, 당연히 돌려줘야 하는 것이냐” 밝혀

누가 써도 좋고, 나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이므로 모두 되돌려놓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목사는 지난해 담임목사 은퇴 때 퇴직금 4억을 교회에 되돌려준 일에 대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지 않나”며 “사택 전세보증금으로 받은 2억원도 되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자기 손으로 돈을 번 적이 없는데 목사들은 퇴직금이 왜 이리 많은지는 말에는 “퇴직금을 모두 현금하겠다는 내 뜻을 알고 (교회에서) 2억원을 더 준 것”이라



최일도 목사가 지난 2007년 거리성탄예배에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사모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한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DB

며 “교회에서 장학재단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포’ 사역을 한지 20년이 넘었는데 변한 것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옛날에는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시끄럽고 요란해 나를 흔들었지만, 이제는 내 마음 속에 악과 독이 많이 빠져나갔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며 “비

록 사업은 커졌어도 정신은 훼손되지 않을 것이고, 외부의 칭찬에 우쭐거리길 것도 비난에 기죽을 것도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지난 24일 영부인 김윤옥 여사가 법포공동체를 찾은 것을 계기로 인터뷰에 나선 최 목사는 “영부인이 당일 배식비 전액을 부담했다”며 “영부인이 찾아오면 경

호 문제로 불편한 점이 있지만 봉사하겠다는 것은 귀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직 대통령 아들(김현철 씨)이 5억원을 기부했을 때도 거절했고, 대기업에서 거액을 대겠다고 했을 때도 사양했다”며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바닷정신을 끝까지 살릴 것이고, 사업이 확장됐지만 이는 내 뜻이 아닌 자연히 그렇게 된 것”이라고 얘기했다.

“몇천 명 몇만 명이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은 없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만날 뿐이다. 내게는 청와대에 계신 분이냐 여기서 밥 먹는 분이냐 똑같이 소중하다”고도 했다.

최 목사는 최근 화두인 ‘행복’에 대해서는 “세상을 바라보는 내가 변해야 행복하지, 내 마음 속에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천국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대웅 기자>

# 3회째 세례 시상식, 불신자 전도 분위기 ‘혁신’

한국교회에 수평이동을 통한 ‘무늬만 교회성장’이 아닌, 불신자 전도로 인한 참된 부흥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시작된 ‘세례 많이 준 교회와 성도 시상식’이 벌써 3회째를 맞았다.

시상식은 28일 오후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한국작은교회살리기운동본부(본부장 박재열 목사, 이하

장은 대표로 밝힌 소감에서 “한 사람이 10명씩만 전도하면 복음화가 이뤄지리라 확신한다”며 “우리 성도들이 작은교회에 가서 예배에 출석해 주고, 작은교회를 위해 전도해 주는 일에 함께 나서자”고 권면했다.

개인 수상자는 문명숙 권사(상도중앙교회, 영화 <회초리> 제작자), 권영혜 권사(국군중앙교회), 최원수 장로(대구공향교회), 이소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권면의 말씀을 듣고 있다. ©이대웅 기자

운동본부) 주최로 열렸다. 여러 후보들 중 교회 2곳과 개인 10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상금으로는 각 교회에 5백만원, 개인은 30만원씩 수여됐다.

수상 교회는 안산 넓은 들교회(담임 김희 목사)와 부천 우리교회(담임 노경남 전도사) 등이다. 넓은 들교회는 지난 2007년 8월 가족들과 함께 교회를 창립, 2009년까지 20여명까지 성장했다. 이후 시상 해당 연도인 지난해에는 운동본부의 목회사관훈련에 참가하면서 비약적인 성장을 경험, 7월 26명에게 침례식을 가졌다. 넓은 들교회는 현재 재직 80여명, 출석 52명으로 큰 폭의 성장을 이뤘다.

우리교회는 지난 2009년 7월 6명의 성도와 함께 국뉴스사관학교 교장이기도 한 노경남 전도사가 “개척교회도 할 수 있다”는 본을 보이게 위해 창립했다. 이후 모든 성도들이 열정을 다해 총력 전도에 나서 지난해 1년간 36명에게 세례를 줬고, 현재 재직 80명, 출석 60명 규모가 됐다. 노 교

레 권사, 하종남 권사, 김재열 권사, 전종에 권사, 김봉순 권사, 신희철 집사(이상 동선교회) 등이다. 이들 중 ‘소금 전도법’을 전파하고 있는 전도왕 출신 최원수 장로는 1-3차 개인 전도상을 모두 수상했고, 이소레·하종남·김재열·전종에 권사, 신희철 집사도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수상했다.

사실 지난 2008년 시상식을 시작하려 했으나 수상 대상자가 없어 시상식 자체가 취소한 것에 비하면 ‘격세지감’이다. 운동본부는 이같은 불신자 전도 분위기를 확산에 고무적이라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수상 기준은 교회의 경우 청·장년 100명 이하 재직에 주일예배 50명 이하 출석하면서 1년에 20명 이상을 세례(침례)준 교회, 청·장년 200명 이하 재직에 주일예배 100명 이하 출석하면서 1년에 30명 이상 세례(침례)준 곳들이다. 개인의 경우 10명 이상 세례(침례)를 받게 한 사람들이다. <이대웅 기자>

# 이찬수 목사 “신천지 교인, 나를 전도하려 해”

이찬수 목사(분당우리교회)가 신천지 교인들이 교회에 찾아와 자신을 전도하려 했던 경험을 주일예배에서 밝혔다.

이찬수 목사는 30일 분당우리교회 주일예배에서 “요즘 신천지의 공세가 위험 수위를 넘은

이목사는 “더 놀라운 것은 저를 전도하려고 왔던 일”이라며 “몇달 신정을 해서 만났더니 신정을 계속 밝히지 않았고, 총회장님이 안부를 전해달라고 하셨다고만 했다”고 전했다. 그는 “저는 노회도 잘 안 나가는데 어느 총

홍보물은 신천지 CD와 안내책자였다고 한다. 이목사는 “예전에는 무료성경신학원이라고만 하고 신천지임을 숨겼는데 이제는 대놓고 신천지라고 한다”며 “그걸 받고는 이 사람들이 나를 굉장하게 보고 우리를 아주 시시하게 보고 전략적으로 결정했구나 생각하니 기분이 안 좋았다”고 말했다. 이찬수 목사는 “그러나 다음날 인근의 영력이 뛰어난 목사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며 “이 일을 겪으면서 왜 지금 신천지가 이렇게 열안이 돼 전도지를 돌리는지 의문이 들었는데, 신천지의 14만 4천명을 채워야 한다는 신천지의 교리를 알고는 이해가 됐다”고 설명했다. 날을 잡아두는 것이 아니라 수를 정해놓으니 성도들이 전도에 더 열의한다는 것. 이목사는 “성적 타락 현상은 도덕적·윤리적 현상 이전에 영적 문제”라며 “영적 타락의 현상은 바로 성적 타락과 이단의 특색으로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이대웅 기자>

## 뮤지컬 ‘미션’ 제작 발표회… “영화보다 깊은 감동 전달”

영화음악의 거장 엔니오 모리코네가 음악감독으로 참여한 뮤지컬 ‘미션’ 제작 발표회가 31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렸다.

갑작스런 감기몸살로 엔니오 모리코네가 불참한 가운데 열린 제작발표회에는 그의 아들인 음악감독 안드레아 모리코네를 비롯해 대본을 집필한 야야 페아스트리, 프로듀서 마씨모 델리오, 연출가 스테파노 제노베세 등 이탈리아 상무뮤지컬컴퍼니 최남주 대표 등이 참석했다. 안드레아 모리코네는 “음악의 비중이 상당히 커 신경을 썼다. 드라마의 강도가 훨씬 깊고 강력하기 때문에 영화보다 깊은 감동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경 기자>



이찬수 목사. ©크리스천투데이 DB

“예배가 마치면 바로 우리 교회 문 밖에서 전단지 돌리고 CD를 배포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목사는 “심지어 지난 주에는 분당 안에까지 난입해 전 단지를 돌렸다”고 폭로했다.

회장님께서 안부를 전하셨나고 몰으니 밝히지를 않더라”며 “그러더니 나중에 선물을 주셨다고 해서 홍보물을 받고는 총회장님 성함을 몰랐더니 서둘러 인사하고 갔다”고 얘기했다. <이대웅 기자>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10%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 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 렌트전문!**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562)802-8094 [www.fbmcopiers.com](http://www.fbmcopi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 민중기 칼럼



민중기 목사  
총현선교교회

발점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점이 없이는 예수님은 위대한 선생이 될 뿐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곧바로 완성에 이르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 아니라 유일한 스승 곧 “그 선지자”(the Prophet) 이십니다. 예언된 유일한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사랑합니다. 그의 사랑의 계명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신앙이란 생명입니다. 그것은 자라납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이 자라나고 열매 맺는 것처럼 믿음도 성숙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이가 반드시 자라나야

## 성숙한 신앙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변함없이 성숙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진보는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과 관계는 모든 관계의 기본이자 뿌리입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없이는 우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나를 위한 제사장입니다, 선지자요 왕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와 주님의 관계의 핵심적인 부분이라 말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는 제사장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피를 흘려, 자신의 몸을 드러 단번에 영원히 완벽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제사 드린 영원하고 유일한 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

것을 실천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초보적 신자의 범주를 떠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며, 선지자이며,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고대의 왕이 온 나라의 주인인 것처럼, 왕이 온 나라의 주권을 가진 자인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시면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다스리시고, 마지막에는 우리와 온 세상을 심판하실 강한 왕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만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섬겨야 합니다.

위엄 있는 영광의 왕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대제사장이라고 하니, 그 왕께서 지혜롭고 섬세한 교사이자 선지자라고 하니,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과 같이 왕 같은 대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한다고 하니 큰 복 위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 김지성 칼럼



김지성 목사  
글로벌선교교회

.....  
무엇이든 집중하면 얻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 스포츠를 보면 체력 또는 기술면에서는 비교적 평준화가 되어 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축구를 보더라도 아주 약체팀을 제외하고는 선수들의 개인기나 체력 등은 비슷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막상 경기에 들어서면 강한 팀은 역시 강한 모습을 보이며 승리를 거둡니다.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는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다름 아닌 집중력의 차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아시안컵 축구 대회 중계방송에서 진행자의 멘

트가 생각납니다. “경기내용이 팽팽하다보니 결과는 얼마나 실수를 하느냐에 좌우될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말이었습니다.

실력 면에서는 대등하지만 결과는 승패로 드러납니다.

무엇이 승패를 결정짓는가? 실수 유발이었습니다.

실수를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하는

얼마 전 아덴만에서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되었던 한국의 화물선 상호주얼리의 선원들을 구조하기 위해 한국의 청해부대가 펼쳤던 작전이 화제입니다. 구조작전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선원들은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구조작전의 전술핵심은 기만술이었다고 합니다.

기만술이란 적을 교묘히 속여

신념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자신을 관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13)”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은 집중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

## 집중 또 집중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집중은 중요한 것입니다.

집중이란 한자어의 뜻을 풀이하면 마음을 모은다로 표현됩니다. 마음이 모아지면 대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언제나 대역사를 방해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악한 마귀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대역사를 방해하기 위해 온갖 술수를 다 부립니다.

그런데 마귀의 술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분산입니다.

마음과 정신을 분산시켜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가 마음을 분산시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음이 모아지면 대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서 교란시키는 방법을 말합니다. 적을 교묘히 속이는 기만술은 초점의 분산을 목적으로 합니다. 결과 소말리아 해적들은 한국 청해부대에 의해서 제압당하였고, 인질로 잡힌 선원들은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이 구조작전을 접하면서 승패의 관건이 집중에 있다는 사실을 재발견하였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음이 분산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데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자꾸 마음이 엉뚱한 곳으로 풀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다 보면 엉뚱한 신념조차 생깁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그런

나눔이 주신 본질인 능력, 사랑, 절제와 같은 영적 성품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마귀가 영적인 목표물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도록 디모데의 마음을 분산시키는 것을 바울이 극히 염려하였기에 표현하는 말일 것입니다.

집중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라인에서 이탈되도록 만드는 것은 집중력 해이입니다. 집중력 해이가 탈선이라는 엄청난 비극을 초래함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한해가 진정한 생명력이 움트는 한해가 되기 위해서는 집중, 집중 그리고 또 집중이 필요합니다. 신앙을 향한 강력한 그 집중이 말입니다.

### 이현국 칼럼



이현국 목사  
미주 대한신학대학및대학원

-이머징교회-  
(Emerging Church)

미국 뉴저지 드류대학의 교수이자, 교회 미래학자인 레너드 스윙은 그의 책(Postmodern Pilgrims)에서 포스트모던 시대의 교회를 위한, EPIC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 현대교회의 새로운 예배의 흐름(2)

### EPIC모델이란?

경험적(Experiential), 참여적(Participatory), 이미지(Image-driven), 관계(Connected)를 의미하는 것이다.

### 1) 경험하고 느끼는 교회

포스트모던 문화는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 즉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정의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한다.

### 2) 참여하고 상호작용하는 교회

포스트 모던인들은 상호 의존적이며 관찰자가 아닌 참여자로 세상을 인지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상호작용할 수 없는 것에는 관

심을 가지지 않는다.

### 3) 이미지와 이야기로 사교하는 교회

글이나 말이라고 하는 단순한 전달체계를 식상해 하며 이미지와 이야기를 중요시 한다.

### 4) 관계가 살아있는 공동



### 체를 세우는 교회

포스트모던 사람들은 규율에 복종하고 싶어 하지 않는 대신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경험을 하고 싶어 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거룩함과 삶의 변화를 맛보고 이웃과 도덕, 그리고 영적인 가치의 연결 구조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고 싶어 한다.

www.rosehills.com

# 로즈힐 공원묘지

100여년 역사의 정성스런 관리서비스와 기쁘고 편리한 로즈힐 공원묘지를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세요!

비교해 보면 가장 저렴한 가격!  
**월 \$39부터!**

- ▶ LA 한인타운에서 20분 거리 ▶ 풍수지리적 관점의 최고 명당
- ▶ 세계 최대 규모 단일 공원묘지 ▶ 한인장례매니저의 친절한 상담

묘지에서 장례식까지 모든 것을 한 곳에서 저렴하게!

ROSE HILLS Memorial Park & Mortuaries  
Rose Hills Mortuary Whittier #FD970

Morning Glory Lawn, \$2,900 plus one time endowment fee, 10% down payment. Balance financed at 3.9% (this interest rate is good for 2nd Quarter, April through June 2010). Automatic bank payment required. 84 monthly payments

<b>본사 (한국어 직통)</b> 1-888-848-8707 Rose Hills Mortuary (#FD970) 3888 Workman Mill Rd, Whittier, CA 90601	<b>세리토스점 [한국어문의]</b> 1-877-767-8850 Rose Hills Arrangement Center (#FD1849) 11900 S. Street, #119 Cerritos, CA 90703	<b>브레아점 [Brea]</b> (562) 809-7027 Rose Hills Brea (#FD2007) 835 S. Brea Blvd., Brea, Ca 92821	<b>장의 &amp; 장례보험 문의</b> (562) 201-7097
--	---	--	---



박용덕 칼럼



박용덕 목사 남가주빛내리교회

근대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데카르트(Rene Descartes, 1596-1650)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I think, therefore I am ; 코기토, 에르고 숨 cogito, ergo sum)"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생각이라는 관념을 통해 존재의 유무, 살아 있는 자인가 죽은 자인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생각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 생각의 가

니다. 그렇다면 과연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며 영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바로 알려면 사람의 구성 요소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흔히 세상에서는 사람을 이원론적으로 봅니다. 하나는 육체로 그리고 또 하나는 정신으로 보는 것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사람은 보이는 외면적인 부분과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부분이 있는데, 보이는 부분은 육(body)이라면 보이지 않는 부분은 영(spirit)과 혼(soul)의 부분으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

하면서 그것으로 충분하다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정말 위험천만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정신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어서 그 정신적 부분으로 철학자도 되고, 과학자도 되고, 문학가도 되고, 정치인도 되고, 사업가도 되지만, 그들이 영의 생각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한 그들의 생각은 흔적인 생각에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세상에서 착하게 살 수도 있고, 많은 공헌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아무리 세상적 선을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그것은 영의 생각이 아니라 흔적인 생각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반드시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흔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의 선언과 같이 사망의 결과를 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과 혼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영적 성장에 치명타를 가져올 뿐 아니라 영생과 영멸을 가르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당신은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때 흔적인 생각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영적인 생각으로 살아가십니까? 다시 한 번 로마서8장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롬8:5-8)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치가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로마서 8: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생각은 생각인데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소속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는 사망이고 하나는 생명과 평안의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

입니다. 그리고 육체는 보이는 가시적인 부분이요, 정신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부분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람의 구성요소를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5: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spirit)과 혼(soul)과 몸(body)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령하실 때에

다. 혹 어떤 분들은 영과 혼을 구분하지 않고 혼용해서 쓰는 분들도 있지만 영혼의 분류 여부는 성도의 영적 생활을 엄청나게 좌우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확실히 알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섬기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흔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

남성수 칼럼



남성수 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오래전의 일이다. 미국에 와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

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내 상황을 알리게 되었다. 마침 한 분이 아주 친절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내 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하기에 그만 그분의 조언을 그대로 믿고 일을 추진해 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그분의 조언은 문제 해결은 커녕 문제만 더 악화시키고 말았다.

결국 하는 수 없이 변호사를 찾아가 그동안의 이야기를 하고 도움을 구해 아주 어렵게 문제의 해결을 본적이 있었다.

그 때 뼈저리게 느낀 것이 하나 있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전문가를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전문가를 듣고 사람들의 조언을 듣기 이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변의 든든한 백(?)을 찾지 이전에, 이미 우리의 인생을 시작해 가지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주님께 먼저 나아가야 한다. 인생의 문제는 우리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

우리 주님을 찾아가는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먼저 들어야 한다. 그것은 말씀을 대할 때만 가능하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가장 확실한 통로이다. 그래서 수많은 종교 개혁가들은

김한요 칼럼



김한요 목사 세리토스장로교회

2009년도 간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서 애플회사를 잠시

"매직", 그것이 무엇일까? 전 애플의 최고경영자였던 가세(Jean-Louis Gasse)는 그것은 비밀과 신비의 차이라고 말했다. 비밀은 마치 비밀번호를 갖고 있는 금고 같아서 연구하고 시간을 드리면 번호를 찾아서 열리는 것 이지만, 신비는 여전히 신비이다. 바로 스티브잡스는 애플회사를 신비롭게 하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Newsweek 1/23/11).

나는 비즈니스를 전혀 모르는 문외한이지만, 한 사람이 한 회사를 이렇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신기

한국말 번역이 어렵지만, 실상 "이 신비가 크도다 This is a great mystery(KJV)"가 더 원어에 가까운 번역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비밀번호를 알아야 열리는 금고라기보다는 매직터치, 은혜로 열리는 신비이며, 복음의 영광을 지닌 교회는 신비 중의 신비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 성도는 그 몸의 지체이다.

교회를 소위 경영하는 목사인 나는 결코 스티브잡스 흉내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신비한 교회를 비밀금

전문가의 말을 들으라

황을 맞이한 적이 있었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던 탓도 있었지만, 미국 문화에 미처 적응하지 못한 때라, 일처리를 한국식으로 하려는 경향이 남아 있어, 법적인 문제 앞에 변호사를 찾아가기 보다는 주위 사람들의 조언에 그만 귀가 솔깃해 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열이면 열 모두가 자신의 방법이 제일로 좋은 방법이라고 확신하며 조언하는 탓에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할지 혼돈스러웠다. 그러다가 인터넷 사이트에 내 상황을 알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조언을 구하는 것

자를 찾아가야 한다. 법적인 문제는 법의 전문가인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고, 질병이 왔을 때는 전문가인 의사를 찾아가야 하며,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회계사를 찾아가야 한다. 전문가만이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인생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인생의 문제의 전문가인 우리 주님을 찾아가야 한다.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생각지도 못한 고난과 아픔이 찾아왔을 때, 우리

말씀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그렇게도 싸웠다.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루의 스케줄을 계획하기 전에, 일터의 현장에 나가기 전에, 사람들의 소리를 듣기 이전에,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의 전문가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그것만이 인생을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길이다. 다윗의 고백처럼,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내 길의 빛으로 여기며 사는 자는 분명 인생의 전문가인 주님의 인도와 보호와 책임져 주심의 은택을 입게 될 것이다.

비밀과 신비의 차이

떠났던 CEO 스티브잡스가 다시 건강상의 이유로 회사를 "잠시" 또 떠나는 소식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과연 '잡스 없는 애플(Jobs-less Apple)'이 계속 갈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많다.

많은 전문경영인들은 스티브잡스가 없는 애플은 당장 영향은 없어도 매직(magic)은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점치고 있다.

하기만 하다. 그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신비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 마술적인 매직은 어떻게 생긴 것일까? 내 손에 아이폰 하나 들고 있지만, 제대로 그 기능을 쓰지도 못하는 나로서는 알 수 없는 수수께끼이다. 사도바울은 에베소서 5:32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말씀하였다.

교화 하는 우범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애플회사를 신비하게 하는 자가 스티브잡스일지 모르지만 교회를 신비하게 하는 자는 목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이다.

애플회사는 스티브잡스 없이도 갈 수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없이는 신비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며 기껏해야 도둑맞은 금고일 것이다.

여드름 고민 해결!

첫 상담 무료! 효과가 없을 경우 100% 환불 보장제 실시

재발하지 않는 근본 치료법 침 + 해독 + Becare

몸 속의 원인을 다스리고, 피부의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치료합니다. BeCare요법은 피부 내면 치료를 통해 면역 체계를 작동하게 하여, 비정상세포(여드름)를 정상세포로 바꿔주는 치료법입니다. 그동안 Becare치료를 받으신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여드름 재발없이 깨끗한 피부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경산한외과병원

원장 류재규 경산 한외과 대학 교수

3030 W. Olympic Blvd., Suite 202-203, Los Angeles, CA 9006 (삼호관광 몰 2층)



T.213-380-0853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Classified Add



## 웨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213-453-5900 / 714 743 1000**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 www.familyauto.us

중고차 황제 김기형

20년 LA에서 가장 오랜 전통! 정육점의 원조 본점!

## 초이스 11가 정육점

USDA 프라임과 초이스 생고기만 판매  
양념 LA 갈비 / 교회, 단체 특별가격!

▶ 불백엔저스 프라이드 갈비살, 갈비, 꽃살  
차돌배기, 유기농 흑돼지 삼겹살 등...  
<자신있게 권해 드립니다!>

1134 S Western Ave #A5 Los Angeles CA 90006 (웨스턴 + 11가 12가 사이)

웨스턴 11가점 Tel (323) 733-4677

## LA 긴급 출장 자동차 정비

▶ 에어컨 수리 아주 저렴 ▶ 도어 고장 (유리 포함)  
▶ 문장금 & 타이어 문제

## LA 용달 & 심부름 센터

각종 보험 완비  
(213)926.1243 / (213)435.5736



Pacific General Insurance Agency, INC.  
**태평양 종합보험 (주)**

**▶ 비싼 보험료 때문에 아직도 고민하세요?**  
저희 회사는 여러분의 사업체와 개인보험 위험을 없앨수는 없지만  
보험료 비용은 낮출 수 있습니다. (LIC# 0G17850)

상업보험전문 / 종업원상해보험 / 개인보험 / 생명보험 / 건강보험  
호텔, 그로서리, 세탁소, 상가건물, 아파트, 식품마켓, 교회보험, 각종비즈니스, 상업차량, Surety Bonds

☎ **323-378-6213 - Toll Free : 877-393-2311**  
451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동양선교교회 앞)

## 치과 기공 기술 학생모집

(면허 소지한 원장이 직접 지도합니다)

10월 29일, 12월 19일 시험대비 CDP 치과기공 면허 응시생 모집  
CDT 치과기공 면허 준비반

- 4-6개월, 1년 과정, 기초부터 철저 지도, 현장실습, 취업알선
- 가을학기 숙성 학생모집 (웍스, 포셀린, 메탈 모델)
- 전 치과 기공 대학 학생, 현 면허 시험 강사 특별 지도
- 각종 장학금 혜택 목사님 추천서 10%DC

**제퍼슨 치과 기공 대학 (213) 384-3006**  
2140 W. Olympic Bl. #310 (윌셔은행 3층)

**초기 이민자, 재취업 기술교육**

## LA 케atering

주말 점심메뉴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Church Set (교회용식사) Menu D를 보십시오.  
편리한 예약 상담/ 신속한 전적 서비스  
[www.lacatering.com](http://www.lacatering.com)

- 카레라이스 \$1.00 (1인당)
- 짜장소스 \$1.00 (1인당)
- 유채 콩나물국 \$1.00 (1인당)
- 김자 미역국 \$1.00 (1인당)
- 아재 비빔밥 \$1.20 (1인당)
- 고기 비빔밥 \$1.80 (1인당)
- 육개장 \$1.5 (1인당)

1-800-530-5660 / 1-800-711-0776

## 식재료 도.소매

- 주일 예찬 식재료 (양념, 젓갈, 김, 김치 각종 장류, 밀반찬)
- 교회 바자회 물품 (음료, 스넥, 건과류, 각종 공산품 등)
- 각종 Tea (커피, 동글레, 홍차, 녹차 등)

☎ **818-306-7652**

사과 팝니다  
New & Used  
Buy & Sell

## 조립식 각종 선반 전문





중고 선반 대량 보유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장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달리움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입니다.

(323) 855-5687 / (213) 200-3050  
646 S. San Pedro St. LA CA 90014 (산페드로 St, 6가 7가사이)

블라인드 카텐 전문 업체

## CITI BLINDS.

Toll Free (888) 383-2209  
Direct (909) 821-9329  
Fax (626) 443-3100

HunterDouglas  
windows fashions  
Priority Dealer

MR 박은 찾아주세요!

Home depot 보다  
**싼 가격 보장**

공장 직판 wood shutter  
각종 Remote Control  
BLINDS 제작전문

655 Berry St. #F  
Brea, CA 92821  
citiblinds@gmail.com

Natural Hot Spring!

## 엘시노 천연유황온천

LA에서 제일 가까운 온천장!

1. 교회 단체를 위한 예배실(컨퍼런스 룸)
2. 가라오케, 바베큐 시설 완비
3. 가족단위 위한 객실에 온천탕 구비
4. 주변에 호수, 골프코스, 아울렛, 와이너리

Elsinore Hot Spring Resort  
(951) 674-2581/9997  
316 N. Main St Lake Elsinore, CA 92530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한국인 직원이 한국식 포장이사를 해드립니다

그리소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www.easy2424.com](http://www.easy2424.com) 8122 Male Ave, #1, Los Angeles, CA 90001

## 3개월 단기 과정으로 유아교사 자격취득

● 유아교사, 원장 Certificate Program

- 3개월 집중 과정으로 유아교육 현장 실습을 포함하는 전문 교육을 받게 됩니다.
- 졸업 후 Preschool, Day Care Center, Family Child Care에 취업 및 유아 교육기관 설립을 안내해 드립니다.

**TEL. 714-932-9728** 스탠튼대학교  
12666 Brookhurst St, Garden Grove, CA 92840

'아토피, 비염, 천식' 한방으로 해결합니다.

## 편강환

- ▶ 30여개국 해외진출
- ▶ 7만명 이상의 환자 진료

스탠튼대학 (부속) 편강한방병원  
9618 Garden Grove Blvd., #221 Garden Grove, CA 92844  
Tel. 714-539-6562 Fax. 714-539-9077

## CHOI AUTO

30년 경력, 정직, 성실로 봉사 하겠습니다.

**323)732-3836**  
Cell. 213-344-8098

1409 S. Western Ave. L. A., CA 90006 (Western + 15th)

Value  
Windows & Doors

## 이중창문교체전문

특별세일  
7월 21일

10개 기본창문 (햇빛차단 Low-E)  
**\$2,699+Tax**

창문 10개 이상 Order시 블라인드 가격 10% 할인

## 철 공 콘크리트

웬스/자동모터, 방범창, 계단, 철문, 자바라, 주차장 라인, 콘크리트, 아스팔트, 벽돌 담장

**213-327-9929**

## 방수, 루핑

LIC # 531243

지붕, 욕실, 벽, 텍, 지하, 창문 물새는 곳, 특수 방수 공법, 완벽시공

CAP CONSTRUCTION  
**213-327-9929**

## 한국방송+미국방송 동시 시청




TCO Satellite Inc. DIRECTV. SATELLITE TELEVISION

지금 신청하세요!

## 1-800-489-8775

창문 인테리어의 모든것 - VIVA BLIND

## 비바블라인드

상업용 ROLL SHADE 자체 전문 제작

- 커튼-맞춤전문(Custom Made)
- 블라인드 - Bass Wood, Faux Wood
- Bass Wood Shutters 전문
- 마루바닥 - 원목, 인조마루 취급전문
- 온돌마루

**TEL. (213)-389-0070**  
1411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17

## 크레딧카드 은행구좌 당일현금

- ◎ 한국구좌 및 신규구좌 가능
- ◎ 크레딧 700이상(20만이상)

\*유학생 및 귀국자 특별플랜

## T. 213-820-3504

결혼꽃 전문 꽃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 기니꽃집


36년 경력

- 결혼꽃 (Wedding)
- 생일 꽃다발 (Bouquet)
- 장례꽃 (Funeral)
- 각종 개업용 화환 및 화분 (Plants)
- 교회꽃 (Church)
- 파티꽃 / 풍성장식 (Parties / Balloon Decoration)

T. 213-385-3377, Fax 213-383-2137 / 2500 Wilshire Blvd. #103A, L.A., CA 90057



# < 2010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TEL : 562-926-1023, 4691 | FAX : 562-926-1025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코헨대학교 & 신학대학원**  
Cohe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TEL : 310-793-2285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USA



**국제개혁대학교·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I-20 발행, 각종 장학금 혜택  
\* KAPC 교단 직영 신학교

TEL : 213-381-0081, FAX : 213-381-0010  
125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캘리포니아센트럴대학교**  
California Central University

TEL : 213-381-7007, 213-248-0170  
520 S. La Fayette Park Pl. Ste. #103, L.A., CA 90057

**국제기독교교육대학**  
International Education College

유아교육대학 개강 2011년 2월 13일  
(2주마다 입학 가능) www.icecusa.com  
TEL. 213-368-0316 /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os Angeles CA 90010  
(월서 + 웨스턴)

**국제장로회연합신학대학**  
Unit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TEL : 714-879-7952 / FAX : 714-879-7952  
1749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월드크리스천대학교**  
World Christian University

본교 대학부는 전액 장학금을 지급 대학원 (M.Div) 과정  
통신학부, 목사후보생 모집 및 교육  
유학비자발행 (방문비자무료변경)

TEL: (323) 734-0227 FAX: (323) 734-0053  
2716 Ellendale PL. Los Angeles, CA.90007



**캘리포니아 라노대학교**  
California university llano

T: 714-490-0065 F: 714-333-4990  
520N. Brookhurst St.Ste.120 Anaheim CA92801  
www.californiauniversityllano.org

**피드몬트대학교**  
Piedmont University

TEL : 323-777-5269  
1090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44

**풀러신학교선교대학원한국학부**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I.S Ko.Studies

T: 626-584-5574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http://korean.fuller.edu

**미주대한신학대학**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TEL : 213-440-0125  
1325 12th Ave. LA CA 90019

**칼빈성서신학대학원**  
Calvin Bible College & Seminary

TEL : 213-389-8987  
4055 Wilshire Blvd. 6419 L.A., CA 90010



**미주개혁신학대학교**  
I-20 발급

2966 Wilshire Blvd. 2nd Floor, Los Angeles, CA 90010  
Tel #: 213-736-6500 / Fax #: 213-736-6504

**아메리칸신학대학및대학원**  
American Theological Seminary

ARPC 미국 총회 목사 안수 I-20 발행

TEL : (323) 733-7565 , (818)535-9036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http://www.atsusa.org



**미션신학대학교**  
Mission Christian University

하나님 앞에 선하고, 진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명자를 양성합니다. (전액 장학금 지급)

TEL : (562) 869-7497 www.mcuniversity.org  
15000 Studebaker Rd. Norwalk, CA 90650

아·이·토·크·비·비  
**iTalkBB** 로컬/장거리/한국포함 국제전화 무제한~

**아이토크비비**  
하사로 충분합니다!

놓칠 수 없는 기회!  
자세한 내용은 **1.800.872.2902** 에서 확인해주세요  
http://www.Korea.iTalkBB.com

중앙일보/중앙방송 인터넷 웹사이트 (www.koreadaily.com) [조인스아메리카 선정]  
“2년연속 통신부문 최고 히트상품”



Global Unlimited Plan  
**글로벌 플랜**  
로컬, 미국·캐나다 장거리 + 한국포함 27개국에 무제한 국제전화 음성사서함, 발신자표시, 3시간 통화, 착신전화 등 부가서비스 무료제공  
**\$24.99** /월 TAX포함

Global Unlimited Plus Plan  
**글로벌 Plus 플랜**  
한국인만을 위한 아주 특별한 플랜!  
글로벌 플랜의 모든 혜택은 기본!  
한국 휴대전화까지 무제한 통화!!  
**\$34.99** /월 TAX포함

My Korea Number **무료**  
**마이 코리아 넘버**  
한국에서 국내통화하듯 부담없이 미국으로 전화하세요!

**지금 가입하고, 친구추천하면 선물이 팽팡!!**  
행사기간: 2월 28일까지 연장

iTalk Global **무료**  
**아이토크 글로벌**  
외출 시에도 휴대전화로 편리하고 자유롭게 국제전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아이토크비비  
아이토크비비는 환경보호를 위해 종이 장구서 대신 인터넷과 간편한 온라인 크레딧 카드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속 인터넷 가입자에 한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 환경에 따라 통화품질에 다소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규가입자에게는 # Box 결제(연간 \$9.99)가 부과됩니다. 계약 기간내에 서비스를 해지하시는 경우 \$65.00의 가입금 및 프로모션 기간 동안 받은 서비스 충전금을 돌려부여합니다. 기타 관련 사항은 고객센터로 문의하십시오. 모바일 결제(가입자는 개월 \$29.99)가 부과됩니다. 서비스 이용 및 프로모션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www.korea.italkbb.com)를 참조하십시오. 고객센터 1-800-872-29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800-875-8318** 고객센터  
고객상담시간: 365일 오전 9시~새벽 1시 30분(EST)  
지금 Facebook.com/iTalkBBkorea를 방문하셔서 아이토크비비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받으세요!

**아이토크비비 사업자 모집**  
모집대상: 인터넷전화 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 또는 기존 매장내 신규 아이템을 추가하고자 하시는 분.  
사업자 상담전화: **703-349-7216**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 친구 추천 프로모션은 미추천인이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글로벌 플랜 또는 글로벌 플러스 플랜 1년 계약 신규 가입에 한하며, 무제한 플랜은 제외됩니다. 친구 추천을 1명 하신 경우는 추천인과 피추천인 중 낮은 플랜으로 1개월 혜택이 주어집니다.



**PH**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HAS IT**

# 2011년 **신년**특별 세일



2010년 지난 한 해 동포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미주 최대 단일 현대 딜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심에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 드립니다. 2011년 토끼띠 한해도 더욱 고객에 다가갈 수 있도록 판매, 서비스에 만전을 기할것을 약속 드립니다.

-푸엔테힐스 현대 임직원 일동



2011 완전 새로워진  
**쏘나타**



**\$179** (PLUS TAX, 3YR LEASE, TDO \$2,999, 12K MILE/YR, LOYALTY REBAT \$500 VIN # 212326)

2011 대형 세단의  
편안함 제네시스



**\$299** (PLUS TAX, 3YR LEASE, TDO \$4450, 12K MILE/YR, COMP. REBAT \$1500 VIN # 135719)

2011 크로스오버의  
강자 투싼



**\$199** (PLUS TAX, 3YR LEASE, TDO \$3199, 12K MILE/YR, REBAT \$500 VIN # 121098)

2011 귀여운 소형  
세단 엑센트



**\$11,900** (INCLUDE REBATE HMA 500, HMF 1000, COLLEGE 400, MILITARY 500 VIN # 200976)

## 목회자 자체 용자 및 원가 세일

현재 남가주에서 목회하고 계신 목사님들께 크레딧이 나쁘거나, 없으셔도 자체 용자 해 드리거나 원가 세일해 드립니다. (단, 2010년 pre-owned 쏘나타 한정)

- 구입을 원하실 경우 전차종 원가 대우해 드립니다. ●

상기 모든 모델을 어느 딜러보다 가장 크고, 가장 많은 재고를 보유한 푸엔테힐스 현대에서 품위있고, 쾌적한 넓은 매장에서 친절한 각국의 세일즈맨들의 친절한 서비스를 받아 보세요. 진심으로 만족 하실 것입니다.

## 2월 중고차 매니저 스페셜

이외에도 사고 없는 딜러가 보장하는 많은 중고차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니저 원가  
공개 세일



2010 HYUNDAI ELANTRA  
RED STK P975481 \$13,999



2007 BMW 328i  
WHITE STK PZ70863 \$21,699



2007 HYUNDAI AZERA  
BLACK STK P185167 \$15,999



2009 HYUNDAI GENESIS  
BLUE STK P029231 \$28,990



2010 HYUNDAI SONATA  
TAN STK P591753 \$13,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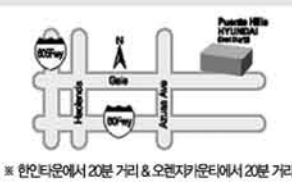
### - 매니저가 원하는 중고차 세일 -

- ▶ 2009 ACURA TSX GRAY #196587A
- ▶ 2007 BMW 328XI BLACK #PP31167
- ▶ 2006 BUIC LUCERNE RED #121938A
- ▶ 2007 HUMMER H3 YELLOW #P126552
- ▶ 2008 HYUNDAI AZERA BLACK #P332058
- ▶ 2009 HYUNDAI GENESIS BLACK #P029231
- ▶ 2009 HYUNDAI GENESIS GRAY #P046436
- ▶ 2009 HYUNDAI GENESIS BLACK #P022767
- ▶ 2009 HYUNDAI GENESIS BLACK #P022532
- ▶ 2009 HYUNDAI SANTA FE SILVER #P270753
- ▶ 2010 HYUNDAI SANTA FE RED #P343949
- ▶ 2010 HYUNDAI SONATA COCOA #P601361
- ▶ 2010 HYUNDAI SONATA WHITE #P598307
- ▶ 2008 HYUNDAI VERACRUZ WHITE #P057661
- ▶ 2009 KIA SEDONA GRAY #P296190

**FREE CAR WASH EVERY SATURDAY 9AM-NOON**  
**\$19.99 Oil Change and Car Wash**  
For All Hyundai Owners + 27 Point Inspection. First time customers only. Available any day. Call for an appointment. Present coupon at time of write-up.

세일즈 시간 월~토요일 9:00am~9:00pm  
일요일 10:00am~8:00pm  
서비스 시간 월~토요일 7:30am~6:00pm  
일요일 8:00am~2:00pm

\*서비스는 친절한 한인담당 Mr. 박을 찾아주세요\*



※ 한터문에서 20분 거리 &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 거리



한국어 상담  
제니 김  
☎ 888.644.7114

**PH 푸엔테힐스 현대 T. 888-212-6431**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 WWW.PHHYUNDAI.COM

**CARFAX**  
VEHICLE HISTORY REPORTS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Right now, finance or lease any new Hyundai, and if in the next year you have your Hyundai, we'll give you \$1,000. See dealer for details.